

위대한 통일한국을 위한

東學思想과 民主主義

— 동학혁명명연구소 편 —

東學革命研究所

동학사상과 민주주의

단기 4331(1998)년 1월 5일 인쇄
단기 4331(1998)년 1월 6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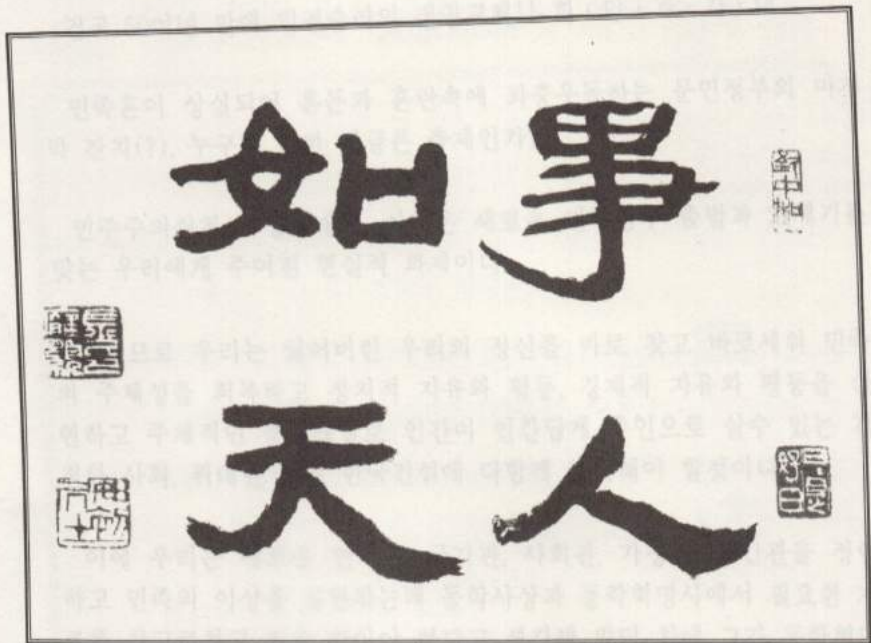
편 자 / 동학혁명연구소편
발행인 / 이 부 규
발행처 / 도서출판 인내천시대

등 록 / 제 1-1634호(1994. 1. 15)
주 소 /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307호
전 화 : 723 ~ 7489, 720 ~ 9240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값 4500원

책을 내면서



※事人如天이란 -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겨라하는 뜻으로서
인간 존중의 정신인바
이는 곧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며
민주주의 정신의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책을 내면서

IMF의 한국경제 관리시대가 개막되었다! 분·노·와·좌·절
건국 50여년 만에 민권승리의 정권교체!! 회·망·과·기·대

민족혼이 상실되어 혼돈과 혼란속에 좌충우돌하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잔치(?), 누구를 위한 서글픈 축제인가?

민주주의실천과 경제개혁, 이것은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과 21세기를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을 바로 찾고 바로세워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정치적 자유와 평등,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주체적인 문화창달로 인간이 인간답게 주인으로 살수 있는 건전한 사회, 위대한 통일 한국건설에 다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민족관, 국가관, 사회관, 가정관, 인간관을 정립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참고로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참에 그간 동학혁명연구소가 준비한 동학의 창도와 사상 그리고 혁명에 대한 글들을 모아 「동학사상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이 현 국난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시대 사명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활용되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 책을 펴는데 편집과 교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해주신 동광애드컴 사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단기 4331(1998) 1월

李 子 賢

❖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에 대한 小考

목

次

11 / 동학혁명 99주년 기념사 김대중

20 / 동학이란 무엇인가? 김 철

35 / 매천을 다시 곱함 김지하

45 / 19세기 동학참도와 그 역할 최재신

57 / 동학사상의 정치적 실천 방안 노태구

87 / 해월사상과 21세기

우리의 시대적 과제 장기표

100 / 민족의 미래와 동학 이자현

108 / 통일시대 동학인의 사명 김태구

부 록

❖ 창립취지문 ❖ 정 관 ❖ 선언문

東學思想과 東學革命에 대한 小考

李 子 賢(富士)

東學革命研究所 理事長

1. 東學思想

水雲思想인 동학사상은, 道(도)는 천도(天道)요 學은 東學(동학)이라는 基本思想(기본사상)의 근본인 侍天主(시천주)의 진리와 事人如天의 倫理(윤리)를 바탕으로 한 人間(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대적 시각을 갖은 人間主體의 人本主義(인본주의)이다.

侍天主(시천주)는 사람이 神(신)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天人合一(천인합일) 神人一體(신인일체) 唯心論(유심론)과 唯物論(유물론)의 모순을 극복한 統合(통합) 개념이다.

人本主義(인본주의)는 人間의 尊嚴位(존엄위)를 신격화한 것으로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自由(자유)와 平等(평등)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神(신)이나 物質(물질)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의 차원으로 높이는 神人一體(신인일체)와 물질에의 根源的(근원적) 평등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이 神을 모시는 주체요, 물질을 사용

하는 주체라는 생각에서 모든 價値(가치)의 중심에 人間을 位置(위치)시키고 人間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역사 문화 문명창조의 주역이 바로 人間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가치의 중심에 人間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神의 본위거나 물질본위가 되므로 인간본위가 말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神(신) 본위는, 神을 主로 삼고 인간을 神에 대한 종속관계로 규정짓고 인간을 神에 대한 봉사자로만 보는 무가치한 존재로서 오직 神의 영광과 神의 의지에 귀속되는 예속의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물질본위는, 물질에 인간을 예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다같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는 결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侍天主(시천주) 事人如天(사인여천)의 인간주체사상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人間主體思想(인간주체사상)은 인간이 모든 가치 중심이며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主體(주체)가 人間 자신이므로 인간의 주체적 결정이 社會(전사회) 발전현상의 궁극적 원인일 뿐만 아니라 歷史(역사), 文化(문화), 文明(문명), 物質(물질) 創造(창조)의 원동력되는 것인바 이는 神이나 물질이 아닌 神을 모신 人間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동학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東學人은, 낡은 先天

(선천)의 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後天(후천)의 문화가 열리는 후천개벽을 열망하며 神이나 물질중심의 문화를 청산하고 인본사상에 따른 인간중심의 문화개벽으로 人類文化(인류문화) 全般(전반)에 일대 변혁과 새로운 문명 창조를 위해 天人合一(천인합일) 個全一體(개전일체)의 原理(원리)에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양극 이념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협동으로 또한 분열과 투쟁의 역사에서 화합과 평화의 길로 各自爲心(각자위심)에서 五心即汝心(오심즉여심)으로 나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나와 겨레가 인류가 하나가 되는 同歸一體(동귀일체)의 開闢思想(개벽사상)으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모순을 지양하는 새로운 문명창조를 주창하였다.

2. 東學革命

東學思想의 실천운동은 敬天·敬人·敬物(경천·경인·경물)의 三敬思想(삼경사상)과 修心正氣(수심정기)를 바탕으로 物心一元調和(물심일원조화)와 廣濟蒼生(광제창생), 布德天下(포덕천하) 輔國安民(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하여 精誠·恭敬·信義(정성·공경·신의) 事人如天(사인여천)의 새로운 倫理(윤리)를 修行(수행)하면서 精神·民族·社會(정신·민족·사회) 開闢(개

벽)에 앞장서서 그 時代의 개혁과 변혁의 전위적 역할을 자담한 것이었다.

그 東學이 창도될 당시 朝鮮王朝(조선왕조)는 극도의 노쇠현상으로 관리는 부정주패로 타락하고 봉건잔재인 신분차별은 극에 이르렀고 따라서 서구 강대국들과 청·일의 개방과 개화의 집요한 요구와 침략에 따른 무력의 위협은 민족과 국가가 멸망의 위기로 치닫게 되었었다.

이때 동학사상을 이어받은 동학인들은 救國(구국)과 救民族(구민족)을 위하여 민중(동학)혁명의 횃불을 높이 들고 甲午年(1894)年 3월 21일 수천만명의 동학민중은 관리들의 무차별한 수탈과 학정을 척결하여 부정 부패 타락을 일소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상천국 건설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격문, 창의문,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除暴救民(제폭구민), 斥洋斥倭(척양척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봉기하여 다음과 같은 12개 조항의 폐정개혁안을 실행하였다.

제 1 조 동학군과 정부외의 힘오의 감정을 일소하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것.

제 2 조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일일이 엄중하게 경계할 것.

제 3 조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것.

제 4 조 불량한 유림과 양반은 징계할것.

제 5 조 노비문서는 불태워 버릴것.

제 6 조 7종의 천민차별을 개선하고 백정머리에 쓰는 평량갓은
벗겨버릴것.

제 7 조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할것.

제 8 조 청춘과부의 재가를 허용할것.

제 9 조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균등하게 채용할것.

제10조 왜적과 간통한자는 엄징할것.

제11조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것.

제12조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케 할것.

이상과 같은 12개 조항의 폐정 개혁안을 실천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중이 주체적으로 실천한 근대화의 시발로서 단군역사이래 처음으로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민중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地方自治(지방자치)의 民政(민정)이 실시되면서 봉건적 낡은 제도의 과감한 쇄신을 단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세 의존적 조선왕조와 日·淸(일·청)의 근대화된 外軍(외군)과 관군의 집중적인 포화로 東學軍은 屍山血海(시산혈해)의 大血戰(대혈전)에서 30만명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1898년에 좌절되고 말았다.

이 동학혁명은 反封建(반봉건), 除暴救民(제폭구민), 斥洋斥倭(척양척왜), 奴婢解放(노비해방), 女性解放(여성해방) 즉 民衆解放과 政治·經濟·社會正義(정치·경제·사회정의)실현의 기치하에 총궐기한 민중이 주체가된 위대한 近代的(근대적) 民主主義革命(민주주의 혁명)으로서 동학사상을 실천한 것이며 우리나라 근대사의 새로운 章(장)을 열게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혼돈과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지난 역사를 재조명하고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21세기를 준비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는 이 時代 使命者(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東學革命 99周年 記念辭

오늘 東學革命(동학혁명) 9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 위대한 革命(혁명)의 과정에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신 全琫準(전봉준)장군과 모든 革命(혁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에 참가한 수많은 農民(농민)들을 追慕(추모)하면서, 그분들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東學革命(동학혁명)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崔水雲(최수운)선생의 위대한 東學(동학)의 교리에 의해서 지도되고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崔水雲(최수운)선생의 “사람이 즉 하늘”이라는 侍天主(시천주)의 가르침, 그리고 崔時亨(최시흥) 선생의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事人如天(사인여천)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민주 사회에서도 추호의 손색이 없는 철저한 人權思想(인권사상)이요 民主思想(민주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東學思想(동학사상)이야말로 우리 歷史(역사)를 통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民族(민족)의 위대한 思想(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宗教의 차원에서는 수많은 民衆(민중)들을 계도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삶의 의욕을 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東學思想(동학사상)은 당시 물밑듯이 밀려오던 西歐思想(서구사상)에 대해서 우리 民族(민족)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思想(사상)과 宗教(종교)를 개척한 것으로서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侍天主(시천주)와 事人如天 思想(사인여천 사상)아래 東學革命(동학혁명)이 이룩된 것입니다.

東學革命(동학혁명)은 또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農民革命(농민혁명)이요 近代化運動(근대화운동)이었습니다. 16세기 宗教革命(종교혁명) 당시 南部獨逸(남부독일)에서 일어난 유명한 農民運動(농민운동)이었던 아나밥티스트의 뮌처 牧師(목사)가 이끈 農民革命(농민혁명)에 비해서도 더욱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이 井邑(정읍)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東學革命(동학혁명)은 우리가 볼 때 몇가지 특별히 評價(평가)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東學革命(동학혁명)은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民權思想(민권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奴婢解放(노비해방)이라든가 과부 改嫁(개가)라든가 班常差別(반상차별)의 撤廢(철폐)등 이런 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東學(동학)의 지도자들은 높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東學(동학)의 지도자들은, 밖으로는 밀려오는 外國帝國主義勢力(외국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封建的(봉건적)인 억압과 수탈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갈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의 우리 사회가 國際政勢(국제정세)와 새로운 思潮(사조)에 너무도 뒤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히 全羅道(전라도)의 井邑(정읍)지방의 벽지에 파문혀 살던 사람들이 이러한 世界(세계)와 歷史(역사) 발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천재적인 통찰력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東學(동학)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農民革命(농민혁명)

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人口(인구)의 거의 전부가 農民(농민)이었던 시대에 있어서, 農民(농민)문제는 바로 국민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農民(농민)들은 수탈되고 짓밟히고 그리고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農民(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뚜렷한 지표를 주면서, 農民(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분연히 일어서서 자기를 封建的(봉건적)인 억압과 착취의 構造(구조)로부터 해방시키고, 토지를 農民(농민)의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잘못된 政治(정치)를 바로잡는 이것 외에는 農民(농민)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수십만의 農民(농민)이 목숨을 걸고 일어서게 하는 全無後蕪(전무후무)한 힘을 발휘하여 東學革命(동학혁명)을 추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東學革命(동학혁명)은 참으로 올바른 改革(개혁)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東學革命(동학혁명)은 당시 봉건적 지배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숨통을 쥐고 있을 때, 그리고 人權(인권)을 극도로 유린하고 있을 때, 당시로서 가

장 절실한 改革(개혁)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女性(여성)들에 대해서, 노비들에 대해서 그들의 解放(해방)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부의 改嫁(개가)를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女性(여성)들의 人權(인권)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農民(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土地改革(토지개혁)을 단행하고, 貪官汚吏(탐관오리)에 의한 虐政을 폐지시키며, 農民(농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길이야말로 農民의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農民解放(농민해방), 近代化(근대화), 人權尊重(인권존중)의 改革路線(개혁노선)이 그당시 革命(혁명)의 에너지를 그토록 강력하게 분출시키는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東學革命(동학혁명)은 日本(일본)세력이 와서 武力(무력)으로 진압했을 때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그 革命(혁명)을 현실의 政治(정치)속에 반영시켰습니다.

全羅道(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만들어서 각 군의 首領(수령)을 장악하면서 農民(농민)대표들이 行政(행정)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一般農民(일반농민)들의 환영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東學(동학)이 높이 내걸었던 輔國安民(보국안민)의 기치가 문자 그대로 훨훨 날리면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東學革命(동학혁명)의 경이적인 본질과 성과를 볼 때 우리는 이 民族(민족)의 한 사람이 된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先烈(선열)들에 대해서 한없이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東學革命(동학혁명)은 결국 民族(민족)의 自主獨立(자주독립)보다는 外勢(외세)를 끌어들어서라도 이것을 진압하려는 당시 朝鮮王朝(조선왕조) 말기의 閔氏(민씨) 외척세력들은 처음에는 淸(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다음에는 日本(일본)을 끌어들이어서 東學革命(동학혁명)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에게는 民族(민족)의 運命(운명)도 없고, 民衆(민중)의 幸福(행복)도 없고 오직 자기 一族(일족)의 富貴榮華(부귀영화)만을 안중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결코 단순히 옛날

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감회를 느끼게 하는 점이 많습니다.

이리해서 閔氏(민씨) 일족들이 끌어들이는 外勢(외세로) 인해서 東學革命(동학혁명)이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공로는 허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東學革命(동학혁명)은 그후 우리나라의 開化發展(개화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民衆(민중)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일깨우고,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후 獨立協會(독립협회), 大韓自強會(대한자강회) 등이 民衆(민중)의 선두에 섰습니다.

東學革命(동학혁명)의 위대한 精神(정신)과 傳統(전통)은 마침내 日帝(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인 1919년에 일어난 3.1 獨立運動(독립운동)을 주도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할 것은, 東學(동학)은 결코 옛 歷史(역사)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人權(인권)이 짓밟히고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곳에는 東學革命(동학혁명)은 오늘의 문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農民(농민)을 포함한 모든 疎外階層(소외계층)들의 恨(한)과 슬픔을 해결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명제가 우리에게 제기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東學革命(동학혁명)의 교훈이 생생히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外勢(외세)가 우리의 國土(국토)를 양단하고 民族統一(민족통일)을 아직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東學革命(동학혁명)의 自主獨立(자주독립)과 外勢排擊(외세배격)의 정신은 脈脈(맥맥)히 살아서 힘차게 맥박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民族(민족)이 낳은 천재적인 지도자 全琫準 장군과 그와 같이 싸웠던 수많은 지도자들과 農民(농민)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全琫準 장군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남긴 詩(시)중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憂國丹心(우국단심)에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後世(후세)에서 누가 이를 알아 주겠느냐”고 한탄했지만, 그러나 全琫準 장군의 한탄은 杞憂(기우)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걱정했던 이상으로 그의 정신을 한없이 기리고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民主主義(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正義(정의)와 人間(인간)의 尊嚴性(존엄성)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祖國(조국)의 平和的 統一(평화적 통일)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東學革命(동학혁명)을 진실로 계승하고 빛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같이 합심해서 노력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新民黨總裁 金大中

東學이란 무엇인가?

金 哲(김 철)
동학선양회 회장

1. 東學은 이 世上을 어떻게 보는가.

어느 宗教(종교)를 莫論(막론)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 宗教(종교)의 性格(성격)을 規定(규정)짓는 하나의 要素(요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東學(동학)은 우선 이 세상을 좋은 세상, 즐거운 세상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東學(동학)의 宇宙觀(우주관)은 매우 肯定的(긍정적)이다. 天主(천주)가 인간이 즐겁고 살기 좋게 이 세상을 造化(조화)로써 만들었다는 것이 다른 宗教(종교)와 구별되는 첫번째 特徵(특징)이다.

世界(세계)의 四大宗教(사대종교)라고 하는 儒教(유교)·佛敎(불교)·기독교·마호멧트교 등 古典宗教(고전종교)를 보더라도 儒教(유교)를 除外(제외)한 세 종교가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괴로움과 시련을 주는 罪惡(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東學(동학)은 이 세상이 인간으로 하여금 즐겁고 보람스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저절로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天主(천주)가 意圖的(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즉 사람이 살기 좋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同歸一體하기를 期待(기대)하는 마음에서 天主(천주)가 이 世上(세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東學(동학)의 '天主造化'(천주조화)라는 개념은 創造(창조)와 進化(진화)가 從(종)이 되는, 創造(창조)와 進化(진화)의 統合語(통합어)이다.

이처럼 天主(천주)와 人間(인간)은 造化(조화)로써 직접 鏈結(연결)되어 있다. 한울은 사람을 통해서 自己實現(자기실현)을 하려 하고, 사람은 한울님 意圖(의도)의 延長線上(연장선상)에서 한울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한울과 인간은 같은 意志(의지)로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 東學(동학)의 宇宙觀(우주관)의 核心(핵심)이다.

2. 東學의 天人關係

한울과 사람이 같은 意志(의지)로 묶여 있다면 이 兩者(양자) 사이에는 하나로 이어지는 不可分(불가분)의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인간은 한울과 직접 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다른 宗教(종교)와 구별되는 두번째 特徵(특징)이다.

古代宗教(고대종교)에서는 인간은 紳(신)과 직접 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仲介者(중개자)가 있어야 한다. 마치 무당이 죽은 사람의 靈魂(영혼)과 산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오직 무당이 중간에 서서 仲介者(중개자)가 되어 通譯(통역)을 한다.

그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예수라는 仲保者(중보자)를 통해서만 이 神(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神(신)은 完全(완전)히 隔離(격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直接(직접) 神(신)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不敬(불경)이며 異端(이단)으로 致富(치부)된다.

그러나 東學(동학)은 天是人(천시인) 人是天(인시천)이요 侍天主(시천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울과 直結(직결)되어 있다. 이것은 東學(동학)의 神觀(신관)인 '侍天主'(시천주)에서 비롯된다. 侍天主(시천주)란 내 몸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 東學(동학)의 教祖(교조) 催濟愚(최제우) 선생은 “나는 도사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으셔라. 네 몸에 모셨으니 捨近取遠(사근취원)하단말가”라고 하여 자신이 仲保者(중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한울님이 네몸, 즉 人間(인간) 自身(자신)이 몸소 모시고 있다는 것을 確言(확인)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神(신)을 찾으려는(捨近取遠(사근취원)) 어리석

은 인간의 迷妄(미망)을 叱責(질책)했던 것이다.

한울님은 비록 超越的(초월적)인 存在(존재)이기는 하나 天人關係(천인관계)로 보면 항상 사람이 모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東學(동학)의 天人合一(천일합일)의 思想(사상)이 나온다. 한울님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兩者(양자)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義菴(의암) 선생은 法文(법문)에서 “한울님과 인간은 항상 함께 있는 두 存在(존재)가 아닌가(常存不二乎(상존불이호))”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몸은 한울님을 항상 모시고 있는 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이 한울님을 늘 모시고 있다면 모시고 있는 그 사람도 한울님과 같이 존경해야 한다. 인간이 존경받지 못한다면 한울님은 그 存在價值(존재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3. 統合概念으로서의 自由와 平等

이와 같이 인간은 侍天主的(시천주적) 存在(존재)이기 때문에 天是人(천시인)이요 人是天(인시천)이 된다. 또한 侍天主(시천주)이기 때문에 인간은 本來(본래)가 自由(자유)롭고 平等(평등)한 存在(존재)이다.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은 여기에서 출발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侍天主(시천주)의 原理(원리)에 의하면 人間(인간)은 正當(정당)한 이유 없이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束縛(속박)할 수 없으며 비록 罪人(죄인)이라 하더라도 基本的(기본적)인 人權(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西歐(서구)에서는 2百餘年(백여년) 前(전) 프랑스 大革命(대혁명) 당시부터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부르짖어 왔다. 그런데도 歷史的(역사적)으로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이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相互(상호) 分化的(분화적) 對立的(대립적) 概念(개념)으로 파악되어 하나의 思想(사상)이나 이념으로 統合(통합)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自由(자유)는 美國(미국)을 중심으로 資本主義(자본주의)를 合理化(합리화)시키는 標語(표어)가 되고 平等(평등)은 소련을 중심으로 마르크스 주의에 의해 공산주의를 합리화하는 표어가 되었다.

이에 비해서 東學(동학)의 侍天主(시천주) 思想(사상)은 사람을 섬기되 한울님 섬기듯이 [事人如天(사인여천)]해야 한다는 實踐德目(실천덕목)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事人如天精神(사인여천정신) 속에는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이 統合(통합)될 수밖에 없다. 男女老少(남녀노소)나 職業(직업)의 貴賤(귀천)이나 地位(지위)의 高下(고하)를 莫論(막론)하고 道德的(도덕적)으로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人權(인권)이 無視(무시)될 수 없다. 이처럼

侍天主(시천주)가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統合概念(통합개념)인데 西洋(서양)에는 侍(시)(모신다)라는 單語(단어)도 없고 따라서 侍天主(시천주)라는 개념이 없다.

이처럼 훌륭한 思想(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先祖(선조)에 의해서 創明(창명)되었는데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그래서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이 美國(미국)이나 蘇聯(서련)에만 있는 줄 알고 해바라기처럼 그쪽만 쳐다보다 보니 자기에게 숨겨진 寶物(보물)을 啓發(계발)할 줄 모르는 愚(우)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은 統合的(통합적)이며 同時的(동시적)인 것이지 따로따로 獨立的(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게 아니다. 마치 손바닥·손등의 兩面性(양면성)과 같고 銅錢(동전)의 兩面性(양면성)과 같아서 원래 하나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곧 侍天主(시천주)요, 東學(동학)의 宇宙觀(우주관)·神觀(신관)의 次元(차원) 높은 一面(일면)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다.

4. 참된 삶,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東學(동학)의 天人關係(천인관계)에 비추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天主(천주)를 위하는(爲天主(위천주)) 삶을 살아야 한다.

한울님이 우리 인간을 侍天主(시천주)의 存在(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었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면 당연히 이에 報答(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마치 자식이 父母(부모)에게 孝道(효도)하듯 한울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自己根本(자기근본)을 忘却(망각)하고 自己本位(자기본위)의 생활을 營爲(영위)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自己根本(자기근본)을 忘却(망각)하는 것은 곧 天主(천주)를 忘却(망각)하는 것이며, 그것은 참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爲天主的(위천주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天主(천주)를 爲(위)해 바치는 글인 「至氣今至願爲大降(지기금지원 위대강) 侍天主造化定(시천주조화정) 永世不忘萬事知(영세불망 만사지)」라는 呪文(주문)을 항상 외이며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즐겁고 감사하며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한울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水雲(수운) 선생은 한울님으로부터 天道(천도)를 받는 순간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身命(신명) 좋을시고, 金(금)을 준들 바꿀소냐 銀(은)을 준들 바꿀소냐.”라고 하면서 한

없는 喜悅(희열)에 잠겼다. 그리고 그 道(도)는 水雲(수운) 선생 개인의 榮光(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濟人疾病(제인질병)과 廣濟蒼生(광제창생)과 布德天下(포덕천하)를 위한 眞理(진리)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여기서 우리는 宗教(종교)의 正道(정도)가 個人(개인)의 福祿(복록)을 비는 祈福信仰(기복신앙)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父母(부모)에게 극진히 孝道(효도)할 때 가장 보람있고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울님의 뜻에 맞는 爲天主(위천주)의 생활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이 社會(사회)와 國家(국가)와 民族(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人類(일류)를 위해서 奉仕(봉사)하고 獻身(헌신)하는 것, 이것이 한울님의 뜻이며 이를 통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爲天主(위천주)란 “나에게 福(복)을 주시오”, “내가 富者(부자)되게 하여 주시오” 따위의 自己爲主(자기위주)의 祈福信仰(기복신앙)이 아니라, 아무런 反對給付(반대급부)도 바람없이 父母(부모)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孝道(효도)하듯 한울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精誠(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精誠(정성)과 恭敬(공경)을 통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이 東學(동학)의 享福觀(향복관)이다.

5. 善과 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東學(동학)에서는 善惡(선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東學(동학)의 善惡觀(선악관)은 古典宗教(고전종교)와 매우 다르다. 쉽게 말하자면 爲天主(위천주)에 맞는 行爲(행위)는 善(선)이 되고 爲天主(위천주)에 背馳(배치)되는 行爲(행위)는 惡(악)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水雲(수운)선생은 善惡(선악)에 대해 말하기를 “君子(군자)의 德(덕)은 氣(기)가 바르고 마음이 定(정)해져 있으므로 天地(천지)와 더불어 그 德(덕)에 合(합)하고 (合其德(합기덕)), 小人(소인)의 德(덕)은 氣(기)가 바르지 못하고 마음을 옮기는고로 天地(천지)와 더불어 그 命(명)에 어기나니 (違其命(위기명)) 이것은 盛衰(성쇠)의 理致(이치)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여기서 天地(천지)와 더불어 天德(천덕)에 合致(합치)된다(合其德(합기덕))는 것은 人類歷史(인류역사)가 盛(성)하게 되는 방향, 즉 한울님이 지향하고자 하는 善(선)의 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天地(천지)와 더불어 天命(천명)에 어긋난다(違其命(위기명))는 것은 天命(천명)을 따르지 않는, 人類歷史發展方向(인류역사

발전방향)과 背馳(배치)되는 衰亡(쇠망)의 길, 즉 惡(악)의 방향으로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歷史(역사)의 發展方向(발전방향)은 善(선)이요 逆行(역행)은 惡(악)이다. 合其德(합기덕)은 善(선)이요 違其命(위기명)은 惡(악)이다. 히틀러나 日本帝國主義者(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때 侵略(침략)에 성공했지만 同歸一體(동귀일체)라고 하는 天命(천명)에 어긋났기 때문에 歷史發展(역사발전)에 逆行(역행)한 惡德(악덕)으로 규정된다.

6. 性靈長生과 向我設位

그렇다면 사람이 歷史的(역사적)·社會的(사회적)으로 善(선)을 行(행)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性靈(성령)으로 長生(장생)한다. 이것이 東學(동학)의 死後觀(사후관)이다. 이에 대해서 한울님은 水雲(수운)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靈斧(영부)를 받아 濟人疾病(제인질병)하고 나의 呪文(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 나를 위하게 하면 長生(장생)하여 佈德天下(포덕천하)하리라.” “道(도)를 갈아 經文(경문)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法度(법도)를 바르게 하여 佈德(포덕)을 하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令汝長生(영여장생) 天下(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이를 쉽게 정리하면, 天道(천도)로써 濟人疾病(제인질병)하고, 呪文(주문)으로 爲天主(위천주)를 하며, 天命(천명)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佈德(포덕)을 하면 聖靈(성령)으로 長生(장생)하여 길이 빛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살면서 한울님을 위해 孝道(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社會(사회)에 이바지하고 歷史發展(역사발전)에 寄與(기여)하였을 때 性靈(성령)으로 長生(장생)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古典宗教(고전종교)의 永生(영생)과 무엇이 다른가하고 反問(반문)할 것이다. 長生(장생)의 方法(방법)이 다르다. 東學(동학)의 長生(장생)은 사람이 죽서 天堂(천당)이나 極樂(극락)과 같은 저 세상에 가서 이 세상과 完全(완전)히 斷絶(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死後性靈(사후성령)이 後孫(후손)과 後學(후학)이 사는 이 세상에서 더불어 長生(장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르켜 性靈出世(성령출세)라 한다.

그래서 義菴(의암) 선생은 性靈出世(성령출세)에 대하여 “祖上(조상)의 精靈(정령)은 子孫(자손)의 精靈(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先師(선사)의 精靈(정령)은 後學(후학)의 精靈(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出世(출세)하여 활동한다”고 說法(설법)했다.

그러므로 東學(동학)의 祭儀(제의)는 過去(과거)의 向壁設位

(향벽설위)와는 완전히 正反對(정반대)인 向我設位(향아설위)로 行(행)한다. 그것은 祖上(조상)의 精靈(정령)이 相對的(상대적)으로 壁(벽)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祭祀(제사)를 받드는 나에게 降臨(강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써 子孫(자손)은 崇祖思想(숭조사상)으로, 祖上(조상)은 護國神(호국신)으로 祖國(조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融合(융합)되는 것이다. 이 向我設位(향아설위)야말로 後代子孫(후대자손)과 先代祖上(선대조상)을 根源的(근원적)으로 또 合理的(합리적)으로 맺어놓은 意識革命(의식혁명)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7. 民族統一은 東學의 理念이라야

이상으로 東學(동학)의 要旨(요지)를 概括的(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문제는 우리 社會(사회)에서, 또는 現代(현대)의 知性人(지성인)들이 이 東學(동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土壤(토양)에서 태어난 東學(동학)이 왜 이 땅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몇해 전에 國會(국회)에서 國是(국시)에 대한 論爭(논쟁)이 있었다. 어느 野黨(야당) 國會議員(국회의원)이 國會(국회)에서 統

—(통일)이 國是(국시)라고 發言(발언)하자 與黨(여당)에서 反共(반공)이 國是(국시)지 統一(통일)이 國是(국시)가 아니라고 들고 일어나 그 野黨議員(야당의원)을 拘束(구속)한 일이 있었다. 생각하면 한심한 作態(작태)였다. 反共(반공)은 統一(통일)을 위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그 自體(자체)가 目的(목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民族(민족)의 窮極的(궁극적) 念願(염원)인 統一(통일)이 目的(목적)이며 따라서 統一(통일)이 國是(국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當然(당연)하다.

이처럼 眞實(진실)이 眞實(진실)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世態(세태)다. 俗談(속담)에 “塵土(진토) 중에 묻힌 玉石(옥석) 뒤라서 분간하리”라고 했는데, 가까이 있는 眞理(진리)를 가려보지 못하고 멀리서만 찾으려고 하는 捨近取遠(사극취원)의 風潮(풍조)로 말미암아 이 땅에 祈福宗教(기복종교)가 盛行(성행)하여 利己主義(이기주의)를 量產(양산)하고 個人主義(개인주의)가 漫然(만연)하는 社會(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南北統一(남북통일)이라는 거대한 時流(시류)를 타고 運(운)이 다가오고 있다. 統一(통일)을 이룩하려면 制度的(제도적) 統一(통일)을 해야 하고, 制度的(제도적) 統一(통일)理念이 되려면 理念的(이념적) 統一(통일)이 先行(선행)되어야 한다. 그 理念的(이념적) 統一(통일)은 自由一邊倒(자유일변도)의

唯心論(유심론)이나 平等一變倒(평등일변도)의 唯物論(유물론) 어느 한쪽으로의 統一(통일)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東學(동학)은 哲學的(철학적)인 面(면)에서는 物心一元(물심일원)인 至氣一元論(지기일원론)이며, 政治的(정치적)인 面(면)에서는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統合主義(통합주의)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東學(동학)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결코 먼 將來(장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에 부닥친 문제이다. 水雲(수운) 선생도 時運(시운)을 타야 한다. 乘其運(승기운)하라고 했는데 이 時點(시점)에서 하루라도 먼저 東學(동학)을 알고 同參(동참)하는 것이야말로 乘其運(승기운)하는 것이다.

過去(과거)에 獨立運動(독립운동)을 하다가 日帝末期(일제말기)에 變節(변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日本(일본)이 敗戰(패전)하고 갑자기 解放(해방)이 되자 땅을 치며 後悔(후회)했다. 그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天地運數(천지운수)의 움직임은 眞理(진리)에 立脚(입각)한 洞察力(통찰력)으로 把握(과약)해야 한다. 水雲(수운) 선생도 玄機(현기)는 함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不露(불로))고 하면서 이 세상의 風雲大手(풍운대수)는 한울의 뜻에 따른다(隱其器局(수기기국))고 했다. 어찌 汚染(오염)된 者(자)의 눈으로 來日(내일)을 내다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無體法經(무체법경)에 보면 眞心不染(진심불염)이라 했다. 眞心(진심)은 純粹(순수)하고 汚染(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時流(시류)에 물들고 目前(목전)의 利益(이익)에 迎合(영합)하는 사람들은 天運(천운)을 豫知(예지)하지 못한다. 東學(동학)의 眞實(진실)을 모르고는 來日(내일)을 내다볼 줄 모른다. 無知(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知性人(지성인)들까지 時流(시류)에 汚染(오염)되어 眞心(진심)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梅泉을 다시 읽함

김지하
민족시인

梅泉(매천) 黃珪(황현)은 지조 있는 지식인의 모범처럼 되어 있다. 그의 <絶命侍(절명시)>는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이 읊조려 마음을 가다듬는 바다. 그는 서른네 살에 成均館(성균관)에 장원으로 급제했으나 부패한 정치를 멀리하고 鄉里(향리)에 내려가 독서와 저술에만 몰두하였고, 私財(사재)를 털어 登場學校(등장학교)를 설립, 新學問(신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梅泉野錄(매천야록)>은 당시 역사를 냉정하게 기록한 저서로 茶山(다산), 聖號(성호) 등에 이어 한국 史學(사학)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였고, 韓日合邦(한일합방)이 되자 통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의 순결한 행적은 지금까지도 많은 지식인에게 師表(사표)가 되고 있다.

그러한 그가 <東匪紀略(동비기략)>에서 동학사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음은 매우 우수한 일이다.

‘이때 경주에 崔濟愚(최제우)란 자가 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天神(천신)이 亂(난)을 내린다 하여, 文書(문서)를 짓고 謠言(

요언)을 만들고 符籙(부적)과 呪文(주문)을 쓰는데, 그 學은 역시 天主(천주)를 존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西學(서학)과 구별하기 위해 東學(동학)이라 개칭했다. 그는 知禮(지례), 金山(금산) 및 湖南(호남)의 珍山(진산), 錦山(금신) 산골짜기를 왕래하면서 양민들을 속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械(계)를 받게 하고 선언하기를, '李氏(이씨)가 장차 망하고 鄭氏(정씨)가 장차 일어나서 大亂(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동학을 하는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앉아서 천주만 외고 眞主(진주)를 보좌하면 장차 태평한 복을 누릴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동학을 서학 곧 天主教(천주교)와 같은 것이며 後漢(후한) 때 張角(장각)의 符水斗米教(부수두미교)나 元明代(원명대)의 素香(소향)·白蓮(백련)의 教와 마찬가지로 하였다.

'天神(천신)이 亂(난)을 내린다 함'은 도대체 무슨 말이며, '李氏(이씨)가 망하고 鄭氏(정씨)가 일어난다 함'은 도무지 무슨 말인가? 나아가 '大亂(대란)이 일어난다함'은 무슨소리며, '天主(천주)만 외고 있으면 복락을 누리고 동학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함'은 무슨 소리인가?

이것은 모두 풍문일 것이다. 풍문만 듣고 史草(사초)를 잡을 수 있는 일인가? 더우기 實學的(실학적) 史眼(사안)이 뛰어나다는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럴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 수 없는데 왜 그랬는가? 王朝(왕조) 지식인의 한계요, 역시 王朝(왕조) 지식인으로서의 實學(실학)의 한계다.

풍문으로만 엮은 梅泉(매천)의 글은 결국 중상모략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이것은 史書(사서)라기보다 風聞錄(풍문록)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냉정한 기록'이 결코 아니라 지배계급의 귀를 통해 굴절된 풍문의 엮음이다.

동학에 대한 梅泉(매천)의 이와 같은 태도와 그 風聞錄(풍문록) 식의 중상모략적 史眼(사안)은 그 때로부터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인들 속에 줄기차게 이어져온다.

萬民共同會(만민공동회)와 같은 民權(민권)운동을 일으키기까지 한 獨立協會(독립협회)는 獨立新聞(독립신문)에서 끝까지 동학당을 '匪徒(비도)'라 불렀고, 최근까지도 갑오혁명을 '東學亂(동학란)'으로 불려왔다.

金容(김용)교수가 지금의 국가체제를 王政(왕정)체제라 부르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겠다.

東學(동학)에 대해 동정적인 지식인들도 동학 농민혁명은 인정하되 동학사상은 우습게 알기 일쑤요, 동학혁명도 독일농민전쟁이나 중국의 태평천국에 그대로 비교하며 이른바 '사회경제사관', '엔겔스 史觀(사관)'으로 보기 일쑤다.

동학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식인들도 철저히 생활하는 민중의 주체적 관점에 서서 보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특히 儒學(유학) 등과 비교해 보아 꺾으나 허름하고 피죄죄한 아전 儒學(유학) 정도로 보아치우기 일쑤다.

이 모든 것이 다 동학에 관한 '梅泉(매천) 현상'이라고 부를 만하다.

수운 선생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 道(도)는 넓으나 간략하다(吾道(오도) 博而的(박이적).'

'병 속에 신선술이 있는데 천년 전에 빚어진 것으로 백만 사람을 능히 구해낼 수 있다. 공연히 마개를 뽑으면 냄새는 흩어지고 맛은 묻어진다. 오늘 道(도)를 위하는 자는 입을 병마개와 같이 닫으라(中有仙酒(병중유선주) 出千年前(잔출천년전) 可活百萬人(가활백만인) 無然一開封(무연일개봉) 散味亦薄(산미역박) 今日爲道煮(금일위도자) 守口如此瓶(수구여차병).'

'우리 道(도)를 듣기만 하는 자는 實(실)이 있는 듯하나 虛(허)하고, 닦는 자는 虛(허)한 듯 하나 實(실)이 있다.(聞者(문자) 如實而有虛(여실이유허) 修者(수자) 如虛而有實也(여허이유실야))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다.’

동학은 심오하고 광활한 우주진화사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중 주체의 삶의 세계관이다. 그것은 맘흘려 일하고, 일한 만큼의 제밥을 찾아먹으며, 부부가 화합하여 자식을 낳고 키우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최선의 우주적 진화사업으로 실천하는 민중 자신의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 닦음으로써만 열리는 생명의 문이다. 왈가왈부하는 시비로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 특히 이른바 ‘민중지향적 지식인’이라면 스스로 닦지는 못할망정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전과 운동을 보다 꼼꼼하게 읽어내야 할 것이며, 동학이 분명한 우주진화사상일진대 서양의 범재신론(PANENTHEISM)적인 우주진화사상가인 뻬에르메야르 드 샤프랭이나 화이트 헤드, 모르간, 하트슨, 니콜라이 하르트만 등과 비교는 해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동학의 하느님이 경전에 나타난바와 같이 ‘至氣(지기)혹은 ‘一氣(일기)혹은 ‘氣化神靈(기화신영)일진대 동양우주론의 주류인 主氣論(주기론)이나 易學(역학)과의 비교쯤은 해보고 나서

왈가왈부해야할 것 아닌가? 하물며 동학이 이른바 儒·佛·仙(유·불·선)의 창조적 통일이요, 國祖(국조) 한배검과 무당 '신내림'의 風流道(풍류도)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했을 때는 儒·佛·仙(유·불·선) 또는 風流道(풍류도)와의 철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할 것 아니겠는가?

만약 동학이 梅泉(매천)이 풍문으로만 때려잡았듯 符水斗米(부수두미)나 燒香·白蓮(소향·백련) 따위거나 西學(서학)의 亞流(아류)거나 新版(신판)정감록이거나 惑世誣民(혹세무민)의 허황한 邪物(사물)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여 저 갑오년에 수백만 민중을 일으켜세우고 오십만 이상이 살육을 당하면서도 대포와 기관총앞에 거의 맨손으로 역사의 지평선을 뛰어넘을수 있었겠는가?

동학은 오만 년 후천개벽이나 地上神仙(지상신선)이라고 했지, 미륵이다, 龍華(용화)다, 千年王國(천년왕국)이다 따위의 소리는 하지 않았다. 이 점을 주의해서 보았는가? 안 보았다면 보아야 할 것 아닌가?

갑오년 일은 단순한 기아봉기나 상승봉기에 불과했는가?

갑오동학 민중혁명은 기아봉기이면서 상승봉기요, 기아봉기·상승봉기이면서 기아봉기·상승봉기가 아니다.

왜 그런가?

미래의 천국, 미륵세계나 용화세계, 천년왕국의 꿈도 아니면서

기아봉기·상승봉기도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란 말인가? 동학은 신비주의요, 갑오 동학 민중혁명은 현실주의란 말인가? 동학은 민중혁명의 이른바 '用武之地'에 불과한가? 복점은 신비주의요, 남점은 현실주의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빛나갔다.

왜 빛나갔는가?

동학사상 자체를 참으로 민중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식인적 관찰자의 이른바 가치중립적 '과학적 객관성'으로 보거나 '정치적 당파성'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삶의 주체가 자기 삶을 스스로 인식하는 '제 3의 눈', 이른바 가치론적 '주관객관성'으로 보아야 한다. '주관객관성'으로 동학사상을 볼 때에만 문제가 풀린다.

동학은 '밥 한 그릇이 萬事知(만사지)다', '제삿상의 멧밥을 위패가 있는 벽쪽에서 제사 지내는 그 喪制(상제) 앞으로 갖다 놓아라(向我設位)'고 가르친다. 여기엔 신비주의도 현실주의도 없다. 여기선 일과 밥과, 자식을 胞胎(포태)하고 낳아 기르는 민중의 일상적 삶 자체가 곧 우주의 신비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일과 그 밥, 그 胞胎(포태)와 양육, 그 삶이 '옴겨' 지거나 빼앗기거

나 '죽임' 당하거나 억압, 천대당하거나, '소의' 되었을 때, 진화하는 우주 전체의 자각적인 대세로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건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갑오동학 민중혁명은 기아봉기·상승봉기이면서도 기아봉기·상승봉기가 아닌 것이다. 북접과 남접의 차이는 시국관의 차이일뿐이다.

弓弓(궁궁)부적을 몸에 붙이면 총알이 범접을 못한다는 풍문만 믿고 그렇게 저돌할 만큼 당시 우리 민중은 愚衆(우중)일 뿐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동학군의 저 엄정한 규율과, 민중적 親交(친교)와, 밝한 그릇을 서로 나눠먹던 그 혼한 전장에서의 광경과, 노인이 젊은이를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고 양반 끄트머리도 종놈에게 공대하던 전장의 풍경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했단 말인가?

어찌해서 그 모든 신비한 힘이 동학사상과 그것을 믿는 민중의 실천적 믿음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찌해서 그 힘이 민중 자신이 신령한 하느님 곧 우주생명이며, 혁명은 바로 그 우주의 파천황의 창조적 진화사업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아 실천한데서 나왔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허황한 풍문으로만 중상모략하는가? 어찌해서 동학이 갑오년에도 죽지 않고 이듬해 乙未義兵(을미의병)전쟁의 主力(주력)으로 또 나타나고, 계속된 의병전쟁에서 또 나타나며, 동학으로 황폐해진 전라도에서 것처럼 대규모

적인 제 3차 의병전쟁의 주력으로 일어났으며, 남한 대토벌 뒤 그 힘은 지하에 숨었다가 '보안회', '진보회'로 다시 나타나 결국 '天道教'(천도교)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3·1운동과 같은 대운동의 주력으로 나타날수 있었던가? 어찌해서 그렇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생명력을 그 사상에서 찾지 않는가?

결국 그것은 그들이 민중을 떠들면서도 민중을 경멸하는 억압자들이요, 민족을 떠들면서도 본질적으로 매판인 까닭이다.

지금은 王政(왕정)체제라고 한 金교수의 말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은 참으로 민중주체의 민족사상을 찾아야 할 때다.

이러한때, 지식인의 역할이 참으로 막중한 이때, 낡은 王朝(왕조)지식이나 외래의 매판 지식으로 동학을 풍문록 식으로 중상 모략하여 때려 잡는 지식인들 모두에게서 나는 黃梅泉(황매천)의 그 도수 높은 안경과 수염과 周衣(주의)와 탕건의 오만을 다시 보게 된다.

이러때 내 다시금 梅泉(매천)을 뜻(곡)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오호라! 끈질긴 王政(왕정)이여! 너 언제 끝나려는가?

이제야 내 환히 알겠다.

水雲(수운)선생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海月(해월) 선생에게

남긴 쇠귀절 뜻을.

'등불은 물 위에 밝아 의심낼 틈이 없으나 기둥은 다 썩은 듯 하나 아직도 오히려 힘이 남았다(燈明水上無嫌隙 柱似枯形 力有餘 - 동명수상 무혐극 주사고형 역유여)

19세기 東學의 創道와 그 役割

一. 東學의 創道

東學의 創道主 水雲 최재우는 西洋이 中國(淸)을 침략한 전쟁에서 戰勝하며 동아시아를 침략해 오고 있으니 中國이 패망할 경우 中國이라는 입술을 잃어 버리게 되면 朝鮮이 멸망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輔國安民의 計策의 하나로써 東學을 창도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水雲은 中國을 멸망시켜 가고 있는 西洋의 힘을 道稱 西道요. 學 稱天主요 教則 聖教라하여 西學의 힘과 武器, 戰爭에서 보인 바와 같은 西洋의 무력이라는 두개의 차원에서 보았는 바 이 중에서도 西學의 힘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 西學의 創立者보다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西學에 대한 대결의식에서 東學을 창도한 것이었다. 이에 水雲은 자기의 새로운 思想을 東學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 그렇다면 道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세기 東學의 創道와 그役割

一. 東學의 創道

東學의 創道主 水雲 최재우는 西洋이 中國(淸)을 침략한 전쟁에서 戰勝하며 동아사를 침략해 오고 있으니 中國이 패망할 경우 中國이라는 입술을 잃어 버리게 되면 朝鮮이 멸망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輔國安民의 計策의 하나로서 東學을 창도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水雲은 中國을 멸망시켜 가고 있는 西洋의 힘을 道稱 西道요. 學 稱天主요 教則 聖敎라하여 西學의 힘과 武器, 戰爭에서 보인 바와 같은 西洋의 무력이라는 두개의 차원에서 보았는 바 이 중에서도 西學의 힘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보아 西學의 創立者보다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西學에 대한 대결의식에서 東學을 창도한 것이었다. 이에 水雲은 자기의 새로운 思想을 東學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 그렇다면 道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으니 學이 또한 東學이 된다고 하였다.

이때의 東은 東國(朝鮮)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水雲의 시대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기나라를 朝鮮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東國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또한 水雲의 설명에 의하면, 마치 孔子가 魯(노)나라에서 태어나 鄒(추)나라에서 儒學의 道를 폄기 때문에 孔子의 儒學에 鄒魯의 文化가 전하여 내려오는 것과 같이 水雲 자신은 이곳 東國(朝鮮)에서 하느님으로부터 道를 받아 이곳 東國(朝鮮)에서 道를 펴니 바로 동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은 東國(朝鮮)을 가리키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水雲의 東學의 東의 개념에는 두개의 차원과 내용이 병존하면서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는 東洋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東國(朝鮮)의 뜻이다. 따라서 水雲의 東學의 개념에는 東洋의 天道學이라는 의미와 朝鮮(東國)의 天道學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水雲의 西勢와 西學에 대한 관점을 보면, 우선 水雲은 西勢를 무조건 경멸하거나 금수와 같은 세력으로 경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道成立德하여 無事佛成하고 전투에서도 그 앞에 맞설 사람이 없을 만큼 막강하고 두려운 세력으로 보았다.

이것은 水雲의 西勢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現實主義的인 觀察에 의거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水雲은 西學에 대해서도 「運인즉 동일하고 道인즉 동일하되 學과 理가 다르다」고 하여 西學이 東學과 마찬가지로 上昇하는 盛運이며, 道는 東學과 西學이 모두 동일하게 天道라고 본 것은 東學이 갖인 普遍主義的 天道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세계의 많은 宗教들이 “하느님”을 자기 宗教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主體主義的 생각보다도 水雲의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훨씬더 普遍主義的이고 客觀的 관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東洋文明과 西洋文明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자기의 主觀主義的 관점에서 西洋文明을 貶下하지 않는 合理的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시대의 衛正斥邪 思想이 三綱五倫의 儒教的 윤리가 없다고 하여 西洋文明을 금수와 같은 邪惡한 文明이라고 貶下한 觀點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水雲이 東學을 창도하는데 활용한 知的 資源은 제일차적으로 종래의 儒教, 佛敎, 仙(道)敎의 지식체계와 서적들이었다. 水雲은 儒教, 佛敎, 道敎가 이미 낡아서 生命力을 잃고 輔國安民의 과제를 담당할 수 없다고 보았으면서도 그 지식체계를 知的資源으로 하여 이를 綜合하고 한 단계 더 지양해서 새로운 思想과 宗教를

創道한 것이었다.

水雲은 제자인 海月에게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우리 道는 원래 儒도 아니며 佛도 아니며 仙도 아니니라. 그러나 우리 도는 儒, 佛, 仙이 아니로되 儒, 佛, 仙은 天道의 한 部分이니라」

水雲이 東學 창도에 활용한 知的資源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와 함께 陽明學 陰陽五行說 風水地理說 易學思想 鬼神信仰 鄭監錄思想 등도 東學 창도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즉 水雲은 東學을 창도함에 있어서 그가 읽은 자기 시대까지의 모든 東洋思想을 知的資源으로 총동원하여 활용한 것이었다. 또한 水雲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西學에 대한 대결의식에서 西學도 反教師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가 아는 西學에 대한 지식도 東學 창도의 지적자원으로 활용하였다.

二. 東學思想의 特徵

(1) 氣一元思想

水雲은 宇宙와 萬物은 모두 氣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氣에 대하여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물을 낳고 지배하는 힘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개념으로는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水雲은 氣로 만들어진 萬物중에서 사람이 「最高의 神靈한 存在」이므로 하느님을 모시므로서 하느님이 感應하여 하느님과 氣化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것은 그의 독특한 氣一元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2) 侍天主思想

水雲은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므로서 神靈性이 있고 하느님과 氣化하여 明德을 더욱 밝히면 지극한 聖人の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水雲의 하느님을 모시는 思想은 위대한 독창적 사상이며 사람에게 중심과 무게를 두어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는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즉 侍天主思想은 모든 人間이 자기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새로운 획기적 思想이 정립된 것이었다. 侍天主思想은 東學思想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水雲의 得道의 本質(本질)을 이루는 것이었다.

水雲의 首弟羊子인 海月은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음을 설명하여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의 宮殿(궁전)이라 할 수 있으니 만약 하느님의 有無를 의심하거든 먼저 自己의 有無를 의심하라」고 하였다.

(3) 修心正氣思想

水雲은 이러한 그의 哲學에 기초하여 修道의 핵심으로 修心正氣思想을 정립하였다.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道를 수행함으로써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하느님의 기운과 합할 수 있도록 수도하여 道成立德하여 君子사람이 되고 地上神仙社會를 이루고져 항상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야 된다는 思想이다.

水雲은 이에 대하여 「仁義禮智는 先聖(孔子)의 가르침이요 修心正氣는 오직 내가 새로 정한 것이니라」라고 하여 東學의 修道의 독창성이 修心正氣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水雲은 「君子的 德은 氣가 正하고 心이 定해져 있으므로 天地와 더불어 그 德에 합하고 小人的 德은 氣가 不正하고 心이 자주 변하므로 天地와 더불어 命에 자주 위배하게 되니 이것이 盛하고 衰하는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4) 平等思想

東學은 侍天主思想을 기초로 하여 독창적인 구조의 平等思想을 정립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至高至貴한 하느님을 모시므로서 至高至貴한 存在임을 自覺하게 되며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平等하다고 본다. 이와같은 東學의 侍天主思想은 당시 兩班官

僚들로부터 천시받고 학대받고 있던 모든 平民과 賤民들에게 人間의 至高至貴함을 가르쳐 주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들로 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것이다.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身分·嫡庶·奴主·男女·老少·貧富에 차별없이 사람은 본래 모두 平等하다고 보고 주창한 것이었다.

예컨대 身分平等의 경우를 보면 兩班도 그의 마음에 하나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平民도 그의 마음에 하나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며 賤民도 그의 마음에 兩班, 平民이 모시고 있는 하느님과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때문에 兩班과 平民은 서로 완전히 平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水雲은 이러한 平等思想으로 兩班身分制度를 否定하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신분차별없이 만인이 平等하며 오늘의 貧賤者는 내일의 富貴者가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東學은 봉건적 조선왕조 시대에 극심했던 男女差別에 대해서도 이를 반대하여 男女平等을 주장하였다. 東學에 의하면 女性도 男性과 똑같이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성은 하느님을 모시는 어린아이를 낳으므로 尊貴하기 이룰데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東學은 어린이도 하느님을 모시었으니 때리거나 차별하지 말것을 강조하였다. 東學은 이러한 平等思想을 당시 兩班官僚들

에게 극심한 差別과 억압과 학대를 받아오던 平民과 賤民들에게 그들도 兩班貴族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平等한 至高至貴한 인간임을 가르쳐서 확고부동한 平等信念을 불어 넣어 주었다. 당시 西學은 인간이 하느님의 종으로서 하느님 밑에서 平等하게 창조되었다는 平等思想을 平民들에게 설파하여 신도를 확보 했는데, 東學은 平民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至高至貴한 同一한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므로 모두가 서로 完全하고 同一하게 平等하다는 훨씬 더 강도 높고 확고한 平等思想을 정립하여 平民들과 賤民들에게 平等思想을 설파하였다. 이러한 東學의 平等思想은 당시까지 세계 모든 宗教들이 창안한 平等思想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平等思想이었다고 할 수 있다.

東學의 이러한 매우 강렬하고 확고한 平等思想은 당시 양반관료들의 차별과 억압과 학대 밑에서 平等을 갈구하고 있던 平民과 賤民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단시일에 하위 신분층의 농민들을 東學道人으로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5) 後天開闢思想

水雲은 人類歷史를 크게 2단계로 구획하여 先天과 後天으로 두고 이 두 단계는 모두 開闢으로 시작된다고 보았다.

先天의 기간은 모두 약 5만년이었는데 이는 다시 3시기로 세분

되었다. 제1시기는 미개시대이고 제2시기는 孔子가 탄생하여 그 학문을 가르쳐 준 시기이며(용성기) 제3시기는 水雲이 살았던 當時(쇠망기)라고 설명하였다. 先天 제3기의 末期가 되면 세상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도덕이 극도로 타락되어 後天의 開闢을 요청하게 된다고 한다.

水雲은 先天世界가 5만년이 原始未開期, 隆盛期, 衰亡期를 다 거쳐 後天世界가 開闢할 時運에 도달하자 하느님께서 그동안 輔國安民, 廣濟蒼生을 위해 고민하여 修道하고 있던 水雲 자신을 선택하여 東西古今에 없던 無極大道인 東學의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東學이 창도되었으며, 따라서 東學은 後天世界의 開闢을 담당한 새로운 思想 無極大道이며 새로운 後天世界 제3기 말기까지의 모든 기존 종교와 사상과 학문을 부정하고 東學의 革命的 새로움을 강조한 思想이었다고 볼 수 있다.

三. 東學思想의 시대적 역할

水雲은 1861년 부터 東學의 교리를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平民層의 백성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크게 성공했으며 1862년부터는 入道者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도 14개 郡에는 郡宰임자인 接主를 두어 接主制度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왕조 정부는 東學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자 큰 위협을 느낀 나머지 1863년 12월 水雲을 체포하여 大邱監營에 투옥했다가 1864년 3월 10일 大邱에서 斬刑에 처하였다.

水雲은 조금도 굽힘이 없이 의연하게 斬刑을 당하면서 「나의 하는 바 東學은 나의 私心이 아니오. 天命이니 그대 관찰사는 비록 나를 죽이나 관찰사의 孫子代에 가서는 반드시 내 道에 따르고 말리라」고 경상관찰사를 조용히 당당하게 꾸짖었다.

水雲의 殉道후에 東學은 首弟子인 道主 海月 崔時亨(1827~1898)의 지도에 의하여 포교 되었다. 조선왕조 정부에 의하여 東學은 邪學으로 규정되고 水雲은 처형되어 東學은 완전히 不法化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계속 東學에 入道하여 東學세력은 비밀리에 날로 증가하여 갔다. 東學에는 당시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入道하고 싶어하는 강렬히 끌어들이는 매혹적인 思想的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東學은 西勢의 도전으로 부터 백성을 구하겠다는 輔國安民의 강렬한 民族主義, 사람이 하느님을 모신다는 侍天主思想을 설파하면서 인간이 至高至貴한 존재로 정립한 最高度의 강렬한 휴머

니즘, 그리고 平等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목말라 찾고 있던 平民과 賤民들에게 인간은 모두 同一한 하느님을 마음에 모셨으므로 완전 平等한 존재라는 강렬한 平等思想을 심어주어 당시의 문제에 창조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兩班官僚들로부터 온갖 차별을 받고 천시되어 오던 平民層과 賤民層의 農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東學에 入道하여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하여 東學은 水雲이 처형된 후 1894년 조선왕조 정부의 잔혹한 탄압속에서 천대받는 민중(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드디어 지상천국건설을 목표로 1894년 東學民衆革命으로 폭발한 정신적 원동력이 된 것이다.

해월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최재신

東學思想의 政治的 實踐方向

盧泰久

경기대학교수

1. 問題의 提起

오늘의 韓半島(한반도)의 상황과 조건은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 변화는 어쩌면 대부분의 韓國人(한국인)의 삶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를 거대한 地殼變動(지각변동)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70年代의 和解(화해)나 '90年代의 新和解(신화해)와 새로운 國際秩序(국제질서)는 모두 아시아에는 逆機能的(역기능적)이었다.

이 전환기적 성격은 2차대전 이후에 성립된 하나의 역사적 시기가 분명히 종결되고 있지만 이 종결이 民衆(민중)의 역사적 진출에 장애물을 놓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世界史(세계사)의 모순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확대되고 있는 최초의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

지금 우리들 눈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激變(격변)은 실로 1945~53년 韓國의 분단이후 처음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南韓(남한)과 北韓(북한), 두 독립국가의 분단과 통일문제에서 파생

되며 그것을 축으로 진행되는 변화이다. 이러한 韓半島(한반도) 周邊(주변)의 精勢變化(정세변화)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은 속도와 폭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이러한 의미에서 현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世界史(세계사)의 변화과정이 南北韓關係(남북한관계) 및 韓半島(한반도)의 내부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東學思想(동학사상)을 통해 再照明(재조명)해 보면서 韓國民主變革運動(한국민주변혁운동)의 진로와 民衆的統一(민중적 통일)의 전망을 해보는데 그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東學革命(동학혁명)의 定立(정립)을 통해 현단계 南北韓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신뢰회복을 통하여 統一韓國(통일한국)의 政治體制(정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南北韓圈(남북한권)의 政治體制(정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南北統一(남북통일)을 위한 和解(화해)·和合(화합)의 적합한 이데올로기를 摸索(모색)해 보는데 그 意義(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時代的 使命(시대적 사명)이자 해결해 가야할 現實的 課題(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政治秩序(정치질서)속에서 韓半島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새 歷史(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지향적 統一(통일)의 모색만으로는 불가능하며, 21세기의 生存(생존)과 繁榮(번영)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未來指向的 統一(미래지향적 통일)을 추구해야만 한다.

고로 21세기적 統一(통일)을 위해서는 理念(이념)과 體制(체제)의 모델로서 축복받아왔던 스웨덴식 社會民主主義(사회민주주의)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政治理念的(정치이념적)으로는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조화를, 社會經濟的(사회경제적)으로는 資本主義(자본주의)와 社會主義(사회주의)의 장점을 결합해 보려는 스웨덴의 실험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한 성공을 거둠으로써 東·西洋(동·서양)진영의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었다.

이제 한반도의 우리들도 資本主義(자본주의), 그리고 社會民主主義(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체험을 염두에 두고 統一韓國(통일한국)에 알맞는 우리나라의 理念的 定向(이념적 정향)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南北韓(남북한)이 각각 21세기의 未來(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統一(통일)은 아울러 미래를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여기서는 東學革命(동학혁명)의 政治理念(정치이념)과 政治體制(정치체제)에 관련된 자료의 分析(분석)과 再照明(재조명)을 통하여 民族(민족)의 自主(자주), 民主(민주), 統一(통

일)이라는 時代的 使命(시대적 사명)과 民族主義(민족주의), 民主主義(민주주의), 文化主義理念路線(문화주의이념노선)의 새로운 定立(정립)과 실천이라는 現實的 課題(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東學革命的 政治的 指向

韓國社會(한국사회)는 1876년 개항이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는 봉건적 社會矛盾(사회모순)과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의해 民族矛盾(민족모순)이 첨예화되는 시기였다. 조선의 봉건정부는 극히 반동적인 政策(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자본주의 열강의 모순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배회하고 동요했기 때문에 朝鮮(조선)의 政治情勢(정치정세)는 날로 혼란하여졌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해체과정을 밟고 있었던 封建的(봉건적) 社會體制(사회체제)를 타파하고 새롭게 近代社會(근대사회), 近代民族國家(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自主權(자주권)을 지켜 獨立國家(독립국가)를 保存(보존)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우리 민족이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自主的(자주적)인 近代國家(근대국가)로 나가려 한다면 근본적으로 政治體

制(정치체제)의 개혁을 통한 社會變革(사회변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反帝反封建(반제반봉건)운동은 단일한 理念(이념)과 形態(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封建的(봉건적)인 社會矛盾(사회모순)과 民族矛盾(민족모순)을 바라보는 관점을 서로 달리했기 때문에 帝國主義 勢力(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대한 대응 또한 각자가 階級的(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封建的(봉건적)인 社會體制(사회체제)에서 近代的(근대적) 社會體制(사회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은 위로부터의 改良(개량)의 길과 아래로부터의 革命(혁명)의 길이 있다. 전자는 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인 지주층이 봉건사회의 피지배층인 농민, 상품생산자, 수공업자, 상인등의 사회개혁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왜곡시켜 자신들이 근대사회의 지배세력, 이른바 자본가계급으로 전환하는 길이다.

반면 후자는 봉건사회의 피지배계급인 농민을 중심으로 부농, 상인, 수공업자들이 자신들의 富(부)의 축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봉건적 사회체제를 일거에 타도하고 근대적 사회관계를 창출하고 이들 중 일부가 새로운 資本家階級(자본가계급)으로 상승 전환하여 근대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되는 길이다. 따라서 한국사

회의 근대적인 사회변혁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은 단순히 국내계급간의 力關係(역관계)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동아시아의 淸(淸)·日(일) 兩國(양국)의 政治的(정치적), 經濟的(경제적) 침략으로 인해 近代的(근대적)인 社會變革(사회변혁)의 문제는 國內(국내)의 階級矛盾(계급모순)과 對外的(대외적)인 社會矛盾(사회모순)이 중첩되면서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韓國(한국)의 中世社會(중세사회)는 中央執權的(중앙집권적) 國家權力體制(국가권력체제)와 地主制的(지주제적) 經濟制度(경제제도)의 결합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봉건체제의 해체와 외세의 압력으로 농촌사회의 계급구성을 크게 변화 시켰다. 즉 부르주아적 지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층과 민중부분을 구성하는 층의 형성이었다. 농민층의 양극화와 봉건적 위계질서의 붕괴라는 社會變動(사회변동)의 계기는 피지배층의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의식으로부터 마련되어 갔다. 지주층과 소작민, 부농층과 빈농층, 고용주와 피고용간의 첨예한 적대의식이 싹트는 가운데 계급대립의 양상은 다양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봉건적 위계질서를 파괴하여 나갔을 뿐 아니라 각 계층간의 갈등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社會問題(사회문제)로 비화되어갔다.

그것은 農民層(농민층)의 意識成長(의식성장)에 수반되어 첨예

화되기 시작한 權利意識(권리의식)과 平等意識(평등의식)이 드러난 것이기도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철저하게 희생되어온 小農民層(소농민층)의 抵抗意識(저항의식)이 두드러졌다. 이들이 革命(혁명)을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平等意識(평등의식)과 權利意識(권리의식)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상민과 천민의 權利意識(권리의식)이 성장하는 방향을 말하며 自由(자유)롭고 平等(평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농민들의 意識(의식)은 점차 집단적 의식으로 성장하여 기본적으로 民權自治(민권자치)를 의미하는 농민적 항쟁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19세기 중반에 농민들은 전통적인 농민의 生活共同體組織(생활공동체조직)인 자연촌 단위의 촌계의 강고한 유지 두레조직의 활성화등으로 나타난다. 두레는 촌계내에 포섭되어 있다가 점차 독자적인 노동조직으로서의 位相(위상)을 정립하여 갔다. 두레는 그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自·小作農(자·소작농)을 중심으로 하고 지주층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自律性(자율성)을 높일수 있었다. 특히 두레조직은 革命運動過程(혁명운동과정)에서 東學軍(동학군)의 동리단위에서 군사혁명성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때 혁명운동에 두레의 참여는 그것이 自·小作農(자·소작농) 중심의 小作農的(소작농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19세기의 통상적 향회가 관치보조적 기구였다면 19세기 중반

농민항쟁기의 향회는 民權自治的(민권자치적)조직이었다. 1893년 報恩集會(보은집회)에서의 鄉會(향회)는 西歐市民社會(서구시민사회)의 民會(민회)에 비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혁명운동과정에서 執綱所(집강소)는 이와 같은 民權(민권)의 성장이란 경험위에서 실시 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농민들의 抵抗意識(저항의식), 平等意識(평등의식), 民權意識(민권의식), 集團意識(집단의식)은 東學革命(동학혁명)의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일본의 침략이라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인 民族意識(민족의식)으로 變化·發展(변화·발전)하였다.

이와같이 革命運動(혁명운동)은 초기 준비과정과 고부봉기에서부터 舊體制(구체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政府(정부)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全州(전주)에서 和約交涉(화약교섭)중이었던 5월 4일에 招討使(초토사)에게 보낸 訴志文(소지문)에서도 “태공(대원군)을 받들어 섭정을 맡기자는 것은 그 理致(이치)가 심히 당연하거늘 어찌 반역이라고 일컫고 살해하는가”라고 하였다. 농민군의 이러한 요구는 전주성을 점령한지 10일만에 철병하면서 전자감사에게 제시한 13개 조건 중 마지막 내용 “國太公(국태공)에게 政治(정치)를 맡겨 民心(민심)으로 하여금 所望(소망)하는 바가 있게 할 것”이라고 한데서 재확인 된다.

봉건적 억압과 세계 자본주의 침략의 수탈로부터 벗어나 소상품 생산자로서의 自立(자립), 發展(발전)을 지향하였던 농민군이 社會的 解放(사회적 해방)으로서 權力(권력)에 대한 인식은 대원군의 섭정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군의 國家觀(국가관)은 아직 제래의 儒教的(유교적)인 國家意識(국가의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농민군의 初期政治意識(초기정치의식)은 상당히 계획적인 혁명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혁명운동의 성과로 획득된 執綱體制(집강체제)에서는 점점 극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執綱所(집강소)가 全羅道(전라도) 53개 郡(군), 에 설치된 후 東學軍(동학군)들이 統治權(통치권)을 장악한 사실에 대하여 약간의 기록들이 남아있다. 이 기록을 보면 東學軍(동학군)은 郡邑(9군읍)을 점령하면 처음부터 主한 사람을 임명하여 太守(태수) = 守令(수령)의 일을 행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 執綱(집강)의 이름은 行政(행정)의 紀綱(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사실은 執綱(집강)이 官(관)이 임명한 邑帝(읍제)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統治權(통치권)을 장악하여 행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執綱所(집강소)의 政治(정치)는 바로 전라도 일대에 대한 農民政治(농민정치)의 실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執綱所(집강소)의 본부인 전주의 大都所(대도소)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라도 수도인 전주에서 東學軍(동학군)총대장 全瑋準(전봉준)은 전라관찰사의 政務所(정무소)인 宣化堂(선화당)에다 大都所(대도소)를 차리고 전라 관찰사 김학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전라도 전역에 대한 실질적인 農民統治(농민통치)를 실시한 것이다.

東學軍(동학군)이 執綱所(집강소)를 설치하고 農民統治(농민통치)를 실시하는데 방침이 된 것이 弊政改革要綱(폐정개혁요강) 12 個條(개조)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一. 道人(농민군)과 政府(정부)사이의 숙원을 없앴과 동시에 庶政(서정)에 협력한다.
- 二.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상세히 조사하여 벌한다.
- 三. 횡포한 富豪輩(부호배)를 엄벌에 처한다.
- 四. 불량한 유생과 양반들을 징벌한다.
- 五. 노비각서를 소각한다.
- 六. 온반(七般)賤人(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립을 없앤다.
- 七. 젊은 과부는 재혼을 허가한다.
- 八. 규정외의 잡세는 이를 일체 폐지한다.
- 九. 관리의 채용은 문벌을 타파하여 인재본위로 등용한다.

十. 일본인과 밀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十一. 公·私債(공·사채)를 불문하고 기왕의 것을 일체 면제한다.

十二. 土地(토지)를 평균으로 분작한다.

이 弊政改革案(폐정개혁안)에는 政治(정치), 經濟(경제), 社會(사회)등 여러 분야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1조와 10조에는 외적의 침략으로 민족적 위기가 조성된 조건에서 人民(인민)들과 政府(정부)가 단결하여야 하며 이 단결을 방해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지켜내야한다는 人民(인민)들의 열렬한 愛國心(애국심)이 반영되어 있다.

5조, 6조에는 당시 노비, 백정 등 최하층 人民(인민)들의 불행과 원한의 화근으로 되어 있던 노비제도와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는데 대한 그들의 적절한 요구가 담겨져 있다.

2조, 3조, 4조에는 人民(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수탈자, 억압자들인 탐관오리, 악질, 부호, 유생, 양반들을 처벌하는데 대한 人民(인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8조, 11조에는 각종잡세와 채무를 없애므로서 이중 삼중의 가혹한 수탈에서 벗어나려는 人民(인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7조, 9조에서는 李朝(이조)전 기간 존재하던 봉건적 악습과 관리등용에서의 지방과 문벌 차별을 없애는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있다.

12조에서는 양반관료들과 지주들에 의한 토지의 집중과 농민의 파산이 격심해진 조건에서 대토지소유를 제한하고 땅을 고르게 경작하려는 농민들의 宿望(숙망)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東學軍(동학군)이 제시한 폐정이 社會身分制度(사회신분제도)를 비롯해서 封建的(봉건적) 舊體制(구체제)의 전반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의 해결 과정에 농민들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집강소의 농민통치를 통해서 봉건적 구체제 전부를 모든 부분에서 근대의 방향으로 변혁시키려고 하는 東學軍(동학군)의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집강소의 이념, 활동내용과 체계를 살펴볼 때 집강소는 농민의 통치기관이며 동학 농민 혁명의 지방정권의 일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농민이 권력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농민혁명운동의 권력기관임을 동시에 아래로부터 농민에 의한 혁명적 통치였다. 만일 농민군이 패배하지 않고 서울까지 올라와 중앙정부를 접수했다라면 집강소에서 발전된 동학농민 정권이 수립되는 것이다.

한편 집강소 시기 이전에 나타난 농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체제를 생각할 때 동학군이 지향한 정치체제는 국체로서는 입헌군주제, 정체로서는 의회제의 원초적 형태인 합의제라고 추론할 수 있다. 동학군의 합의제 의도는 당시 정치적 역할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정치권력을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데올로기로서의 尊王攘夷(존왕양이)는 이제 극복되었고 정치주체와 객주로서의 양반, 유생, 관료의 통치이념은 전면 부정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근대민족국가로 이행할 수 있는 이념과 체제의 비전과 가능성은 정치권력의 장악과 행사를 경험했던 집강소체제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아직은 관민상화를 전제로 한 지역적 권력의 성립으로 밖에 표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동학군의 타협적 자세는 제 2차 혁명운동을 통해 극복되어진다.

제 2차 혁명운동에 나타난 동학군의 정치의식은 상당한 변화를 한다. 1차 혁명운동과 집강소체만 하더라도 지방적 차원에서 대립점을 형성하였다면, 2차 혁명운동에서는 대립점을 왕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섭정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다. 즉 백성의 사정과 뜻을 직접 왕에게 전달하고 실현하겠다는 의식은 동학군의식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고려된다. 제 1차 혁명운동에서 동학군의 대원군섭정에 대한 기대는 일방적 희망이었으나 제 2차 혁명운동에서는 대원군으로부터의 구체적 결탁제

의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청산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동학군의 권력에 대한 구상이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한편 제 2차 혁명운동의 목적은 일본세력을 몰아내려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6월 21일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여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국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군국기무처를 신설하여 친일 개화과정권을 성립시켜 손안에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안 동학군은 혁명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1894년 9월 18일 일본은 스스로 동학군을 진압하겠다고 나섰고 21일 개화파 김홍립 정권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동학군과 정권의 대립, 지주적 토지소유발전의 길과 농민적 토지소유 발전의 길의 대립은 전면화되었다. 제 2차 혁명운동단계에서는 농민군의 사회적 해방의 구도가 '척왜·척화를 쟁취하는 주체로서의 한국민족의 결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의 구조는 반침략·반봉건을 전제로 하고 소상품 생산자로서의 자립·발전의 지향을 중심으로 하며, 그것의 반식민지화, 반봉건에로의 확대·발전이라고 이해된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보면 '근대민족으로서의 집결, 형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즉 혁명운동의 초기에는 국왕, 국권의 절대성을 전제로 하는 儒敎的 政治意識(유교적 정치의식)의 궤도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그 실체부여가 요구되었다면, 개화와 일본의 침략이 결탁하면서 부터는 이러한 요구가 근대민족으로의 결집으로 변하였고, 여기에서 동학군의 정치의식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유교적, 봉건적, 정치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제 2차 혁명운동의 단계에서 동학군의 정치의식은 민주주의적 발전의 단서가 열리고 봉건적 정치의식에서 벗어나 자립화하여, 민족으로서의 결과에 눈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의식은 국권이 허구화하거나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굴절되지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의 전망을 넓혀갈 수 있는 토대를 이미 쟁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치의식은 이후 민족해방의 이데올로기로서, 그리고 통일 국가건설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문화주의로 다시 한번 비약하게 된다.

3. 理念的 課題(이념적 과제)

1) 이데올로기란?

한국정치 현실의 당면과제는 역시 정치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여기서 먼저 통일국가건설의 주요이념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이데올로기란 무엇인지를 그 성격과 전개과

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자.

이데올로기란 말이 단순히 적대자의 주장과 사상이 한갓 허구임을 밝히는 관념구성으로 부터 시작할 때,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18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두 세기간에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서양사상사에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종교적 전통과 맞서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의 이론구조와 정서적 내용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의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비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다. 神(신)에 의해 설정된 하나의 세계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관습과 역사 그리고 언어를 갖는 '민족'의 발견이 그것이다. 또 독자적인 이해를 갖게 되는 '계급'의 발견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과학적 사상을 조건으로 했으며, 그 전제 조건이 된 것이 바로 근대 유럽의 근대과학 기술이다. 기술과 생산면의 혁명은 점차 세계로 전파되었다. 과학기술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단순히 생산 혁명에 그치지않고 사회혁명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주의적 가치체계가 합리주의적 가치체계로 변화되는 혁명은 필연이었다.

19세기 전반기의 서구사회에서는 귀족, 시민, 노동자와 농민의 세개의 사회집단으로 서로 중첩되어 있었다. 복고적인 귀족계급

은 왕권신수설을 지지했으며, 시민계급은 자유스런 시민경제를 주장하는 한편 인민주권론을 제창했다. 무산공업노동자계급이 출현하자 맑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는 구체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열띤 논쟁과 무력충돌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경쟁의 수단으로 되기 쉬웠다. 그 중에서도 시민적 자유주의이론과 프롤레타리아적 맑스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양자는 각기 과학성을 주장하지만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불변의 역사와 사회의 발전법칙에 근거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데올로기성을 띠며, 정치적 행동요강으로 명분화되어 서로 대립되는 정당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20세기에 와서 극렬한 대립상은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체제간의 대립, 경제 구조 형태상의 대립으로 발전되어 냉전체제로 이어졌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와 전체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두 경향은 오늘날 상호보완성이 인정되어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 시대 로써 세계체제상의 대변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을 맞이했으며, 동구권국가들이 개방화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개방과 개혁으로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시대를 우리는 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이데올로기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여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통합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자주적, 민주적, 통일을 이룩해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

2) 民主主義(민주주의의)

한국적 정치사상의 이념적 체계는 동학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동학사상이야말로 한국 전통사상의 근대기적 집대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문제는 동학사상을 근원으로 하여 생겨난 한국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것이다. 원래 동양은 관념과 물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서양과는 달리 관념과 물질을 하나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은 '氣'(기)라는 글자에 잘 나타나 있다. 동방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우리 한국은 '氣'(기)사상을 이어받아 신선사상을 탄생시켜다. 이 신선사상은 신라시대에는 풍류도(화랑도)로, 고려시대에는 인간도로, 조선시대에는 선비사상으로 계승되었으며, 조선말의 유교의 경직화와 서학의 도입으로 이 사상이 희미해지자 수운 최제우가 동학사상으로 집대성시켰다.

동학사상은 우주의 본질을 '至氣'(지기)로 보았는데, 이 '至氣'

(지기)란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는데서 유물론과 관념론을 일치시킨 일이다. 이 '至氣'(지기)는 동학의 철학적 배경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융합시킬수 있는 이론은 동학사상 등 우리나라의 동학사상에 토대한 민주주의이론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적 민주주의란 동학사상에 근원을 둔 조화이론이자, 통합이론으로서 자주적 혼을 불러 일으키고 민족적 대화합에 기초를 둔 평화적 민주적 이론 체계이다. 민족과 개인의 자유도 사회적 평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모두 동학사상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노선을 펴므로 해서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水雲(수운)은 동학사상의 근원을 侍天主(시천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侍'(시)라는 것을 수운은 論學文(논학문)에서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氣化(기화)가 있으며 한세상 사람이 옮길 수 없음을 각각 안다"(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和不移者也 - 내유신령 외유기화일세지인 각화불이자야)라고 했다. 즉 侍(시)라는 것은 신령한 생명의 가치실현의 무궁확산 진화원리로서 內(내)와 外(외), 精神(정신)과 物質(물질), 우주와 인간, 神(신)과 자신이 합일되는 도정인데 수운은 처음 천명을 받을 때 "몸이 매우 떨리고 추우며 밖으로 신령을 접촉하는 氣運(기운)이

있고 안으로 말을 내리는 가르침이 있어서”(身多戰寒外有接靈之氣 內有降活之教 - 신다전한 외유접영지기 내유강활지교)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守心正氣 - 수심정기) 물었더니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吾心卽如心 - 오심즉여심)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시천주사상으로 하느님과 인간이 곧 동체로서 物卽心, 心卽物(물즉심, 심즉물)의 至氣一天下(지기일천하)에서 사람 뿐만 아니라, 천지만유가 사상적으로 동귀일체하는 통치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海月(해월) 崔時亨(최시형)은 이를 人是天(인시천)이라 했고, 義菴(의암) 孫秉熙(손병희)는 이것을 人乃天(인내천)이라고 했다. 의암은 동학을 일제치하에서 종교적인 형태로서 천도교로 바꾸었는데 바로 이 천도교에서는 人乃天理念(인내천이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아득한 옛날부터 하느님을 믿어 왔다. 天道教(천도교)에서는 하느님을 멀리서 찾지 아니하고 내 몸에 모신다고 믿고 이를 侍天主(시천주)라 하였다. 이것은 곧 하늘이라는 人乃天(인내천)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人乃天(인내천)은 초월적 一神(일신)의 개념과 내재적 범신관을 극복하여 妙合(묘합)한 새로운 神觀(신관)이다.

侍天主思想(시천주사상)은 우주의 근원으로 환원된 것이요, 결코 儒·佛·仙(유·불·선) 思想(사상)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

이 아니다. 즉 無極大道(무극대도)의 시천주 천도사상은 무시부터 전부부터 자재한 것이 시대와 운수의 진화로 고대에는 고대인에게 맞는 종교가 되었고, 중세에는 중세인에게 맞는 儒, 佛, 仙的(유, 불, 선적)종교가 되었고, 근대에는 근대인에게 맞는 동학의 시천주를 신앙으로 하는 천도교가 된 것이다.

이 시천주사상은 천인이 합일되어 공존하는 사상인데 이 공존사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인간과 우주가 모두 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협동하고 공존한다는 폭넓은 긍정적 사상이다. 자기가 자기아닌 사람은 대립적 모순적 존재로서 결코 공존할 수 없어 부정을 통하여서만 발전된다는 서양의 변증법사상은 생존경쟁에 있어서 우승열패의 현상을 합리화시키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강국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부정의 변증법은 모든 것을 분열적으로 몰아가서 모든 현상을 상호 반대의 입장에서 규정지어 배타적인 행동을 조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동학의 인간관에 입각하여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事人如天主義(사인여천주의)만큼 철저한 민주주의는 오늘날 서구사회에서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3) 民族主義(민족주의)

동학사상에서 근원하는 민족주의는 민족통합의 이념으로서 주

체적 민족정신을 부활함과 함께 민족의 대화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통일의 사상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학의 呪文(주문)을 통하여 현국적 민족주의의 이념의 체계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문가운데 '永世不忘萬事知'(영세불망만사지)라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동학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도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용이하게 접근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政治理念(정치이념)이 바로 민족주의(정치체제)라는 것이다.

資本主義國家(자본주의국가)인 미국에서도 黑白人種紛糾(흑백인종분규)가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서장·티베) 민족분쟁과 민족독립의 요구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민족의 생활양식을 억지로 획일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오랫동안 가족적 인륜관계만 중요시하던 동양은 민족적 자각이 없어서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다. 동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을 존중하여 가족주의적 인륜생활을 하다가 근대에 들어와 민족주의적 인륜생활로 발전되는데 이 가족적 단계에서 민족적 단계로의 비약을 수운은 후천개벽으로서 민족개벽이라고 하였다. 이 민족개벽으로 영세불망하고 萬事知(만사지)하는 지상천국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보국안민을 통해 布德天下 廣濟蒼生(포덕

천하 광제창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도 간디의 민족주의사상이나 중국의 손문이 三民(삼민)주의를 제창하면서 민정주의(민주주의), 민생주의(사회주의)를 민족주의 토대 위에 둔 것도 이와 같은 정치이념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만든 社會(사회) 가운데 가장 유대가 강한 것은 민족이다. 민족은 혈연, 언어, 문화, 사고, 의식주, 생활풍습등을 같이 하는 역사적 운명 공동체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생활 풍습을 지키고 같은 운명을 따르는 민족생활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 양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가 비동양적이고 비한국적이다. 민족의 기반이 튼튼한 연후에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평등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정치체제에 있어서 먼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배경을 이루는 민족주의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민족주의는 옛날의 강대민족들이 가졌던 침략적 폐쇄적, 전제적, 독재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약소민족으로서 생존적, 개방적, 민주적, 민중적, 민족주의라야만 한다. 우리는 결코 개인만으로 살 수 없고, 또 계급만으로도 살 수 없다. 먼저

민족으로 살아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의 평화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체제를 초월 할 수 있는 이러한 동학사상에 입각한 한민족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학사상은 근대민족사를 정신적, 철학적 지주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동학은 만민평등의 이상사회를 향한 거보로서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민족정기를 세계만방에 드높이는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민족계도에 앞장서는 신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분단을 저지하는 통일운동에 수많은 희생을 당하여 동학 100여년에 걸쳐 근 백만의 희생자가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동학은 후천개벽사상으로 민족적 자각을 토대로 갑오동학혁명, 3·1운동 등을 주동하여 왔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착과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이제 또다시 하나의 커다란 민족운동을 주도할 운명을 지닌 역사적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文化主義(문화주의)

어느 사회주의 운동가는 “레닌의 무장봉기론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 30%쯤은 틀려 비판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옹호해온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잘못이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선거, 의회제와 자유 인권 민주 등의 가치는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온 자본주의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계속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소련의 사회주의의 유연한 모습이 본질적인 ‘변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행중인 대변혁의 파장이 이제 이 땅의 자주적 사회주의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문화주의의 정치노상에 대해 그 이념적 성격과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 생명의 철학적 본질과 이치를 깨달아 진리를 구하고 학문운동, 예술운동, 종교운동, 도덕운동등을 벌림으로써 그리하여 끊임 없이 정신적, 지성적 활동을 통해 진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의 철학을, 고찰하는 것은 문화주의적 논리적 설명을 위해 중요하다. 여기서는 동학의 ‘不然其然(불연기연)이론’을 중심으로 생명의 철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생명은 二重的 三神的 活動(이중적 삼신적 활동)을 한다. 살아 있는 것은 다 일면 모순으로 보이는 운동을 한다. 이것을 파악하는 문법이 ‘아니다 그렇다’(不然其然 - 불연기연)이다. 민중은

언제나 개체와 전체, 자유와 평등, 안정과 변화를 함께 요구한다. 그러나 이 때 절충적 중간노선은 서구적 변증법적 종합명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위태롭다. 이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수렴독재, 따라서 암세포의 출현을 가져왔다. 따라서 생명은 끝없이 드러남과 열림, 곧 '開關'(개벽)으로 보아야 한다. 전체주의와 수렴독재를 각계 각층 전민중의 확산그물망(network)로서 무력화시켜야 한다.

민족은 하나의 생명체다. 생명체는 이것만 저것만 강요해서도 안된다. '그렇다' '아니다'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는것은 병적 현상이다. 남북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과 저것이 불연속적이고 모순되고 따로 떨어진 이야기인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속되고 통일될 수 있고 연속적 문제라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점차로 이것과 저것을 연속적 불연속, 불연속적 연속으로 파악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그렇다'의 일차적 메시지 인데, 이 안에 들어 있는 招(초)메시지(Meta - Message)는 뭐냐. 즉 완전한 통일에 대한 전망이다. 완전통일은 현대문명안에 가득히 퍼져있는 갖가지 소외, 그리고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등을 한 문제로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문명을 탄생시키는 이상적 전망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완전통일에 대한 전망은 세워

지질 않는 것이다.

독립군출신 장준하는 “우리 민족통일은 통일이상의 것이다.”라고 이러한 함축적인 말을 하였다. 통일이상의 전망을 가져야 되고,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상의 창조적 통일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않으면 공존자체는 위태로와진다는 설명이다. 이 전망에 의해 공존이 깊어지고, 제한, 견인, 수정도 극복되어 공존자체도 유지된다.

이 넓은 완전통일의 차원, 새문명건설로 나가려면 피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 학습은 이중적 메타·메시지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생명사상 그에 맞는 새생활양식의 창조와 연관된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메타·메시지 사이의 관계를 불연기연의 원리와 먼저 설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제 더이상 남과 북이 命題(명제)와 반명제사이에서 경작된 전투적 관계를 통해서 통일이라는 종합명제에 도달한다는 식의 단순(=직선)변증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은 착각이고 위태롭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문화주의 운동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하나의 처방으로서 동학을 비롯한 전통적인 한국사상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생명이라는 주요개념(Key - Word)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사상을 체로

하면서 서양의 문명을 용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새로운 연구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연기연의 메타메시지로서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이중적으로 파악하는 연속적 불연속적인 동학의 논리로 파악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운동, 정신사상, 문화운동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4. 結 論

21세기를 준비하려면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겪은 소련의 해체가 과거 인간 역사의 모순을 극복하여 보려는 20세기적 노력이다. 유럽의 이러한 21세기적 노력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오늘의 많은 문제의 원인을 근대적 사고와 행위양식에 대한 논위를 활발히 진행에 왔다. 탈근대적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전위적인 방법으로 근대적 사고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 공간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을 동시에 포함하는 일종의 4차원적 사고를 의미한다.

유럽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탈냉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탈근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不然其然的 生命哲學的(불

연기연적 생명철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이를 탈냉전 국제질서라고 부르기 보다는 '포스트모던 국제질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이 보여주는 '포스트모던 국제질서'의 징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의 변화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선행 지표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위해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근대국제질서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삶의 터전을 넓혀나가는 複合單位體(복합단위체)를 만들어 국가이익, 지역이익, 세계이익을 동시에 추구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국제질서의 참여를 위한 초보적 단계이자 숙제인 국내통합과 한반도의 통일도 미처 끝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21세기의 과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근대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유럽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세계를 새롭게 볼 줄 아는 시각과 이방면의 전문가들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새롭게 개발해 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학사상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동학사상은 그 이론과 동학혁명의 실천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일정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동학군(농민군)은 제2차 혁명운동에서 그들의 주정의식은 그때까지의 봉건적이고도 특권적인 권위주의의 구체제의 정치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립적이고도 민중적인 미래지향의 민족의식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학군의 자립적인 민족의식은 국정이 허구화되더라도 굴절하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 민족과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주의에의 전망을 넓혀갈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이는 이후 일제식민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민족해방의 이데올로기로서 그리고 오늘날은 통일국가건설의 정치이데올로기인 민주적 민족주의 정치이념적 체계는 우리의 전통사상의 논리를 체로하고 서양의 문물을 용으로 한 동양사상에서부터 찾을수 있음을 알 수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비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치철학을 정립함으로써 有知無爭(유지무쟁)의 정치, 有進無退(유진무퇴)의 경제, 有善無惡(유선무악)의 社會(사회), 有強無弱(무강유약)의 국방, 有正無邪(유정무사)의 宗教(종교)의 이상적인 민주적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월사상과 21세기 우리의 시대적 과제

장 기 표
신문명 정책연구 원장

머릿말

전세계가 대격변의 와중에 있다. 역사의 눈으로 오늘의 이 전세계적 변화를 통찰컨대 이것은 분명 문명사적 대 전환이다. 정보화와 지구촌화에 의해 산업구조, 사회관계, 국제관계, 인간의 욕구와 희망 등이 전면적으로 변함으로써 산업문명시대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정보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보화와 지구촌화에 의한 신문명의 도래는 물질적 풍요, 대중의 자주성 증대,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의 자아실현성 구현을 통해 인간이 해방된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후천개벽을 통해 인간해방을 실현하려면 이것을 이룰수 있는 사상과 이념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세계적 현상이다. 그동안 인간해방을 약속해 주던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념부재, 이념혼돈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마침 우리민족에게 후천개벽을 통해 인간해방을 약속해주는 사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동학

사상이다. 동학사상을 대중이 실천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해월사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신문명시대를 맞으면서 해월사상에 기초해서 오늘의 시대적 과제를 설정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시의 적절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월사상 내지 동학사상의 본질을 조망하면서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동학사상의 요체

동학사상에 대해서는 굳이 필자의 설명이 필요없기에 이 글의 구성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 두기자 한다.

동학사상은 한마디로 사람이 곧 하느님이요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접해야 하며, 후천개벽을 통해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사인여천, 보국안민, 제폭구민, 광제창생, 동귀일체, 후천개벽(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만인평등 사상이요, 인간해방 사상이요, 후천개벽 사상이다.

東學과 海月思想

1) 東學敎理의 실천적 해석

海月(해월)은 水雲(수운)선생의 동학사상을 철저히 실천 했을 뿐만 아니라 水雲(수운)선생이 창도하신 동학사상을 대중적 실천이 용이하도록 체계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독교에서 바울이 있었기에 예수의 사상이 널리 전파되고 실천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동학에서는 해월선생이 있었기에 수운선생의 동학사상이 전파, 실천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령, “侍天主”(시천주)를 “人是天(인시천)이니 事人如天(사인여천)하라”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用時用活(용시용활)

해월은 동학사상을 현실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했는데, 그 강조가 원체 강해서 “대체로 道(도)는 用時用活(용시용활)하는데 있으니, 때를 맞추어 나가지 못한다면 이는 死物(사물)과 다름이 없다. 우리 道(도)는 오만년의 미래를 표준함에 있어, 먼저 때를 만들고 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고 “이 뜻을 후세만대에 보여 주기 위하여 내 이름을 고쳐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본명인 慶翹(경상)을 時亨(시형)으로 고쳤다. 후천개벽할 때는 ‘바로 지금’이며, 그래서 동학사상을 실천할 때도 ‘바로 지금’임을 크게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종교가 죽은 후에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데 비해 동학은 바로 이 땅에서의 해방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가 어떠한 것 같다.
를 품되려 국기름 누와그 죽고려 제근를 바르 화 사양등 품되 죽
되 때에, 제국주의 세력들 품되려 나라를 누와그 따죽고되이 힘포
서세운되 힘사으르 온양이 사양과 이력과 되력과 국가가 품타와

의안사명 義安思名

들되지 앓을 것이다.

새이야삼곱 30여년에 걸쳐 온화를 되되되이르 준비해왔다고 피아
어 당이 의 양항를 들곳 이해화해서 비죽된 것으로 보인다. 왜행선
화 곧 해전화는 양항이 있었나 그것등 누와그죽사양수의에 때문려
화를 바쳐, 바쳐이르 나누어 바쳐등 타행적의 자세로 혁명들 바대
되다근지바에서 바쳐화 온화혁명들 되국으로 화대시켰다. 후 온

1) 온화혁명공공기관

(양수) 제근 은 대중의 되력들 위화 (의사)를 많이 만들어 썼다.

중포에 는 의안이 중요하다. 해를선생님 (의안사명) (의안사명), (의안사명)

3) 義安思名(의안사명)의 의의

것들을 양조화 것이기르 하다.

구한말과 20세기 말의 말기적 증상의 유사성

동학이 창도되고 동학혁명이 발발하던 시대상황이 너무나 유사하다.

첫째, 동학혁명 당시에는 시세동점 현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야 할 상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서구근대화를 진전시켜야 할 상황이었다. 오늘날은 정보화와 지구촌화에 따라 산업사회로부터 정보기술사회로 변화시켜야 함과 더불어 WTO체제에 따라 대외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것은 양쪽 다 단순히 산업구조의 변화나 국제관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세기 말엽은 봉건왕조와 농경국가로부터 근대민족국가와 산업사회로의 이전이 요구되는 시기로서 동양 문명속에서만 살던 조선이 서구 각국과 통상을 하면서 산업구조를 바꾸고 정치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후천개벽적인 사태였다. 비록 그 시기가 인간해방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봉건적 신분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해방이라고 부를 만했다. 그러면 오늘의 정보화와 지구촌화에 의한 신문명시대의 도래는 어떤가?

가치관으로서 동학이 제시된 것이었다.

오늘의 시대상황도 구한말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념부재 내지 이념혼돈의 시대이거나와 정보화와 지구촌화가 현실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회발전, 민족도약, 인간해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는 커녕, 그것에 부응치못해 사회가 붕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공동체적 삶의 윤리가 파괴되지는 이미 오래이거나와 가정윤리마저 파괴되어 인륜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옳고 그른것을 따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 되어 있다. 사상적, 이념적,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아미노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운동,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성의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데 있어서 그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지도사상이나 지도이념이 기성의 체제나 기성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소외세력으로부터 나온다. 기성세력은 좋은 싫든 기성체제에 붙어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동학이 기성체제로 부터 소외되어 있던 세력에서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외세력 지지와 참여를 확보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도 산업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사상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소외세력으로부터 새로

은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신흥세력과 결합이 될 때, 정치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 경우 소외세력을 피억압 민중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기성사회를 주도하거나 거기에서 특혜를 누리지 않는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특히 문명의 전환에 따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학은 여전히 문명의 전환기를 맞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학의 사상적 지주가 후천개벽과 인간해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동학교단이 우리사회에서 특권이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보다 대체로 소외된 세력인 요 종교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학사상은 신문명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이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도 구한말과 오늘날은 대단히 흡사하다. 문명의 전환기에 대처할 만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집권세력과 지배특권층이 민중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흡사하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책,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문명사적 전환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측면이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날이 구한말 때보다 더 심한 편이다. 자동화와 신

품종의 개발에 따라 인원감축(정리해고)이 불가피하고, 또 감축된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의 제시 없이 한쪽에서는 정리해고의 합법화만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사회가 오늘의 이 난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낼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 우리 사회가 서구근대화 와 대외개방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식민지가 되어 온갖 민족적 수난을 겪었듯이 오늘날도 정보화와 지구촌화로 특정지위지는 신문명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 때 중남미국가가 조락한것처럼 조락하고 말것이다. 동학의 후천개벽 사상을 바로 오늘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후천개벽을 목표로 오늘의 난국에 대처해 간다면, 오늘의 시대상황은 오히려 민족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

앞에서도 대략 언급했지만 전세계가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 신문명의 도래는 인류에게 인간해방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사회파탄과 지구 파멸의 위기가 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21세기를 맞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있다.

의 평등사상과 인간해방사상 뿐만 아니라 “天地人(천지인)은 都是一理氣也(도시일리기야)니라”는 同歸一體思想(동귀일체사상)등은 신문명시대의 주요한 사상적 기초를 이룰 상생과 순환, 조화와 평등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새로운 문명시대를 이끌어갈 사상과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과 이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아울러 국민의 의식을 그러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동학에서 강조하는 정신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룰 뿐만 아니라 통일된 조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통일 국가의 상을 제시해서 남북한 동포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족의 승리적인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통일국가의 상을 제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정책 등이 수립된다 해도 그것을 실현·실천할 주체가 없다면 헛일이다. 지역주의와 금권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정치의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그 어떤 부문도 제대로 개혁될 수 없으리라는 점에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은 더없이 소중한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위와 같은 시대적 과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각계에서 신문명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민대중에게 신문명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 신문명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과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 신문명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모든 사람이 참된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서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실천케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당한 평가가 학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侍天主思想(시천주사상)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적 산물이고, 동학혁명은 다른나라 혁명과 비교할 때 세계 어느 혁명보다도 귀감이 될만한 위대한 뜻을 지닌다고 자랑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을지언정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동학혁명은 조선 봉건왕조의 부패하고 타락한 낡은 질서의 기둥 뿌리를 무너뜨리는 반봉건 혁명이었으며, 양반, 상놈 따로 없이 모든 사람을 하느님 같이 섬기자는 선구적 인권 선언의 의미와 근대적 민주화의 새 질서를 추구하는 민중혁명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은 청(중국)의 속박과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양반, 유생들의 집권 계층이 속수무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신의 안위에만 급급 할 때 동학·민중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주인 역할을 담당했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거룩한 반침략 척양척왜의 혁명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은 붓물 터지 듯, 화산이 폭발하 듯 수천년 짓눌려 온

그들에 가리어 그대로 묻혀버리거나 잊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나간 100여 년에 걸쳐 즐기치게 이어진 민중혁명의 역사를 가능케한 원동력의 동학사상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동학사상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신을 높고 먼데서 찾지 아니하고, 가까운 내 몸에 모신다고 믿는 시천주(侍天主)의 위대한 인간 자주(自主)주체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동학사상은 초월적 유일신의 관념과 내재적 범신관의 상반된 두 관념을 하나로 귀일시키고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위대한 사인여천사상을 세웠습니다.

동학사상은 우주 생성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唯物論(유물론)도 아니며 唯心論(유심론)도 아니며 主理論(주리론)도 아니며 主氣論(주기론)도 아니고 두 가지 상반된 논리를 극복하고 妙合(묘합)한 至氣論(지기론)의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신의 오묘한 창조 질서와 자연과 사회의 복잡다양한 진화 질서를 타율이 아닌 자율로 밝히는 造化論(조화론)의 無

爲而化思想(무위이화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모든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특유한 논리를 보이는 不然其然論(불연기연론)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천국이라는 인간의 이상을 사후 내세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현세에 地上(지상)천국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나라와 겨레를 먼저 구하자는 輔國安民思想(보국안민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등의 서로 반대되는 논리를 극복하고 모든 대립모순을 극복하여 하나로 歸一(귀일)하는 同歸一體思想(동귀일체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還元(환원)하였다고 말하며 性靈出世(성령출세)로 不死長生(불사장생)한다는 내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동학혁명과 3·1운동을 가능케한 원동력일뿐 아니

라 앞으로 통일을 완성할 수 있는 통일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다가오는 태평양시대의 새세기를 주도할 선구적 이념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사상은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새세상이 열린다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後天開闢思想(후천개벽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학사상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어떤 페이지에도 찾아볼 수 없는, 듣지도 보지도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새롭고 가장 위대한 사상이요, 철학인 동시에 길이요 진리이며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이제 21C를 맞이 하게 될 작금의 우리는 안으로 정신개혁의 수심정기 수련을 더욱 돈독히 하면서, 밖으로 사회개혁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 나서서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부터 창생을 건지는 生命運動(생명운동)의 실천과 나아가 민족사 단절의 위기로 부터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民族(민족)개혁에 역할을 담당해야 할 숭고한 명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현하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민족통일이 금세기 안에 다가오는 이때에 미완의 동학혁명 완성을, 그리고 분단시대를 마감하는 통일시대를 열어 나갈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학혁명 100주년을 통일 축전으로 승화하여 통일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으며, 통일은 곧 민족의 자주성 회복이 기본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 회복에 달려있고 따라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아닌 평화적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역사의 주체이며 중심인 동학인들이 앞장서서 그 물꼬를 터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한반도 남북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남북 당사자들이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자주적 자결로 해결해야지 외세에 맡겨서는 안될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 주체성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 통일은 자주적 民族自決(민족자결) 원칙에 의해 남북 양자의 회담으로 어디까지나 끝까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햇빛 찬란히 떠오르는 동방의 위대한 黎明(여명)의

새아침을 향한 힘찬 전진에 동학혁명정신의 깃발아래 정신개벽, 사회개벽, 민족개벽의 새역사 창업의 주역으로서 미완의 동학혁명을 완성시키는데 동학인의 민족사적 사명(使命)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함께 분발하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동학혁명연구소
 理事長 李子賢

統一時代 東學人의 使命

김 태 구

동학혁명연구소 소장

동학의 기본사상

동학은 사상이자 종교이며 철학이자 과학이다. 서학에서는 사상과 과학을 분리하며 철학과 종교를 분리할 수 있지만 동학은 천도라는 무극대도하에 모든것이 통일적으로 조화되어 있는것이다.

동학의 기본사상에는 개벽사상 민족사상 평등사상 외에 우주관으로 볼 수 있는 지기론 인식론 으로 볼수 있는 시천주론 실천론으로 볼수 있는 성경신사상의 역사관으로 볼수있는 불연기연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학의 후천 개벽사상

동학은 인류 역사를 선천시대와 후천 개벽시대로 우선 양분한다.

인류역사는 5만년의 세월을 경과하여 1860년 4월 5일을 전환점으로 후천 개벽시대로 들어왔다는 한다.

그리고 선천시대는 우부 우민시대 성인시대 각자 위심시대로 세분된다.

우부 우민시대란 원시시대로 인류가 미개하여 수렵채취하고 살

던 이른바 구석기시대에 해당되며 성인시대란 이른바 계급과 계층이 분화되기 이전의 선사시대로 전공동체 성원이 자연의 천도대로 살아가던 착취나 억압과 전쟁과 범죄가 없던 씨족공동체 사회 또는 부족공동체 사회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각자 위심시대는 개인 이기주의 사회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세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세분은 서학에서는 중요할지 모르나 동학에서는 그러한 세분은 중요치 않고 다만 사유재산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 이용 억압 살해하는 이기주의 우선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각자 위심시대에는 인간이 천도를 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말할것 같으면 5만년의 10분지 1에 해당되는 비정상적 시대이다.

그러면 후천 개벽시대와 선천 시대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후천 개벽시대는 인간이 시천주하며 즉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모심으로서 천도를 자각하며 개벽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이다.

개벽이란, 변혁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혁이란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개벽은 좀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개벽이란 혁명보다 더 광범위한 변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학에서는 그중에서 정신개벽을 중요시한다. 인간이 만물중에 최령 한것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며 이 정신은 단순한 물질적 속성이나 소산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다. 또 동학은 이 정신개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민족개벽 즉 척왜양외 민족개벽을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날 쉽게 이야기 할것 같으면 반외세 민족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물론 민족개벽사상에는 이러한 반외세 민족사상의외도 여러가지 더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자주사상이며 동학의 여러 경전과 동학선인들의 사상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족 개벽사상이다.

민족개벽사상은 보국안민 광제창생이라는 그 실천적 강령을 포함하고 있다. 보국안민 광제창생은 민족통일사상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동학사상은 필연적으로 민족통일사상을 그 기본적 고유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의 평등사상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학은 또한 민족은 평등하며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거나 정복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동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동학이 가장 철저하게 제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의 혁명사상

동학의 혁명사상은 동학의 기본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필자는 그것을 비폭력 우선주의 민족제일주의 민주체제 혁명사상으로 요약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동학혁명시기에 있어서 동학운동은 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전에 동학교도들은 수많은 비폭력 평화적 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그리고 한세기가 넘게 일관되어 온 동학운동의 주류는 비폭력을 그 운동의 우선적 방법으로 전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적 운동으로서 전혀 불가능 하였을때만 할수없이 폭력적 무장투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 하였던 것이다.

19세기말 동학혁명운동이 그러하였고 3.1 독립독립운동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동학의 모든 혁명운동에 있어서 민족제일주의는 일관된 신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민족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면서 운동을 전개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제일주의는 국수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와는 상이 한것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동학의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해방하면서 세계의 피억압 민족의 해방을 희망하고 있는 민족제일주의라고 이해하여야 될것이다.

동학의 혁명사상에서 또하나 중요한것을 민중주체 혁명사상이다.

이것은 동학의 평등사상으로부터 결과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동학은 민중의 창조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민중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주체사관은 계급사관이나 계급투쟁과는 판이한 것이다. 유물사관의 신봉자들은 인류와 집단을 적대계급으로 양분하고 착취 계급과 피 착취계급의 투쟁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간의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 진보하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의 폭력 혁명에 의해서 즉 계급투쟁의 최고형태인 노동계급의 폭력 혁명에 의해서 자본제 사회는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학을 이러한 유물사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역사가 계급투쟁에 의해서만 진행한다고 이해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광범한 민중의 활동없이 역사의 발전은 될수 없다고만 이해한다.

또 광범위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진행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역사적 활동에 진출시킬 선진세력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이해한다. 즉 동학의 민중에 대한 조직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해한다.

그렇게함으로서 후천개벽 보국안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

동학의 통일이념

동학의 통일이념은 동학의 기본사상 혁명사상과 불가분관계가 있는 것이며 개혁사상 민족사상 평등사상 민족제일주의 민중주체혁명사관 비폭력주의가 모두 통일이념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금 동학이념만이 통일이념으로 될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동학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념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동학의 조화사상에서 원류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민족의 분단은 체제와 분열과 동시에 사상이념의 분열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대체제와 적대 사상을 포용할수 있는 것은 동학의 조화사상으로만 가능하다.

물론 다른 동양사상에서도 조화사상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화사상을 최고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것은 동학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동귀 일체사상으로부터 세계 평화주의인류평등주의가 유래하는 것이다.

동학은 우리민족의 통일을 원할 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우호관계를 다른 어떠한 사상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동학은 민족개벽과 정신개벽이란 기본사상으로부터 우리민족의 통일된 정신 통일된 민족전통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동학에서는 남과 북의 개념이 아예 없으며 남조선이니 북조선이니하는 용어를 아예 사용치 말아야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분단이후 외세의 침략세력들이 조작한 말들이다.

통일운동에 있어서 동학의 사명

통일운동에 있어서 동학은 기본 사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띄고 있다.

동학은 우리민족의 통일없이 발전할 수 없으며 통일은 또한 동학을 배제하고 이룩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은 첫째로 통일 운동에 있어서 통일이념은 제공하여야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통일 이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학만이 통일이념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가지 긍정적 통일이념과 더불어 동학이 중요한 통일이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학의 조화사상 비 배타적사상으로부터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동학은 통일이념을 가진 이념조직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학의 역사관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출되는 것이다.

즉 민주주체사관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이념을 가진 조직이 동학조직만이 아닐 것이며 또 동학이 유일한 통일운동조직은 아닌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된다.

다만 동학의 통일이념조직이 통일운동에 가장 중요한 조직중의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학은 통일운동에 있어서 정신적 연도를 하여야 한다.

통일운동을 함에 있어서 정신적 연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동학혁명시기에 있어서 해월선생의 정신적 연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학 혁명은 그 구심점이 분열되지 않고 일괄성 있게 배신자 탈락자 없이 진행되었으며 지방정권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운동에 있어서 동학인의 역할과 임무

여기서 동학인 이라함은 천도교인 뿐만아니라 동학을 신봉하는 사람과 동학의 기본사상을 접수하는 광범위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현금 통일 운동세력은 각종의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각층이 현재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 동학은 외세의 침략세력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이 결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동학은 이러한 외세 침략세력 즉 분단을 가져왔고 또 분단을 영구화 할려는 세력을 적발 잔멸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누가 반민족세력인가에 대해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범위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예정할수도 없다.

다만 동학인은 그러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들이 극소수라고 단정함에 꺼린다.

물론 통일운동의 각단계마다 이러한 분단체력은 상이 할 수 있으나 그 시기마다 동학은 이러한 세력을 적발 폭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과 부단한 투쟁과 설득을 단행해야 할것이다.그들과의 투쟁과 형태와 정도는 상이 할 수 있겠으나 동학은 그들에게 한치의 인간적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동학인은 통일운동세력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동학의 본질상 통일세력의 통일은 동학인이 가장 적절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세력의 통일은 무원칙적으로는 통일될수 없다.

무원칙한 통일이란 분열이 잠복하고 있는 거품같이 살아지고 말 운명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동학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통일운동의 통일에 가

장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서 통일운동의 통일이란 일사 불란한 행동의 통일을 요구하는 이른바 중앙 집중제적 조직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통일 세력간의 분열과 반목을 배제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목적과 목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동학은 통일이념 조직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통일운동의 이념조직이란 동학은 전면적으로 신봉하는 자들만으로 조직을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일에 긍정적인 이념을 가진자들과 연대하여 구성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이 정당의 형태로 할 것인가 사회단체 기타의 형태로 할것인가는 더 많은 연구와 실천행동이 요구 될것인가는 지금 말할수 없으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한 통일이념조직을 동학인은 창출하여야 할것이다.

또 동학인들은 통일세력을 광범위하게 확장 발전 시키기위해 민족통일에 공헌 할 수 있는 연구 교육선전기관을 시급히 창설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므로써 광범한 민중에게 통일의 의지를 심화시킬수 있다.민중의 완강한 통일의지는 통일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또 통일운동에 있어서 동학인의 임무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세계 평화애호로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동학의 본질상 동학인이 당연히 가장 적합하게 이

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학이 최고 수준의 세계철학 사상이라고 동학인은 자부해야 하며 동시에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통일에 전세계 평화애호 세력들이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동학인은 만주동부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겨레의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확정하는데 노력하므로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는 동학인이 여타의 통일세력 보다 동학의 통일운동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創立 趣旨文

나라의 根本(근본)이 백성이라는 민본사상(民本思想)으로 다스려져야 할 이 世上(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소외되고 불평등하게 천대받던 이 땅의 民衆(민중)이 除暴救民 斥洋斥倭(제폭구민 척양척왜)의 旗幟(기치)를 높이 들고 民權爭取(민권쟁취)와 民衆解放(민중해방)을 위해 蜂起(봉기)한 東學革命 歷史(동학혁명 역사)가 100년이 된 이땅의 현실은, 1945년 8월 15일 外勢(외세)에게 강탈당한 조국강토가 또 다른 외세에 의해 해방되고 동시에 분단된지 반세기를 맞게 되었으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채 이념적 갈등과 감정적 反目(반목)으로 민족분열이 계속되어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위상을 정립하여 그 실천의지로 우리의 현실적 과제인 자주적 통일조국 창업과 民族(민족)의 共生(공생), 共存(공존), 公營(공영), 그리고 世界平和(세계평화)를 실현해야 할 역사적 轉換期(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世紀前(세기전)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통합개

념인 東學(동학)의 侍天主(시천주) 事人如天(사인여천) 思想(사상)으로 人間(인간)이 人間(인간)답게 살수있는 君子共同體(군자공동체)인 地上天國建設(지상천국건설)을 目標(목표)로 燎原(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무능하고 부패한 유교적 봉건체제를 해체시키고 近代化(근대화)를 促進(촉진)시키는데 原動力(원동력)이 되었던 東學革命(동학혁명)이 民族(민족)의 理想(이상)과 目標(목표)가 실종되고 里程標(이정표)도 없이 방황하게 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떠한 歷史的(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또한 어떤 의미의 時代的使命(시대적사명)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研究(연구)하고 對案(대안)을 準備(준비)하여 社會改革(사회개혁)과 統一(통일)된 祖國(조국)에 기여하고자 東學革命 研究所(동학혁명연구소)를 創立(창립)하게 된 것이다.

단기 4326년 8월

東學革命 研究所

定 款

第1章 總 則

第 1條 (名稱) 本 研究所는 東學革命研究所라 稱하며 大韓民國 首都에 둔다.

第 2條 (目的) 本 研究所는 東學思想과 東學革命過程을 研究하며 外勢에 依해 왜곡된 우리의 歷史와 精神文化를 바로 잡아 세워 새로운 價値觀을 창출하여 통일조국의 새 역사에 기여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 (事業) 本 研究所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爲해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東學思想 研究, 東學革命 資料 開發
2. 東學關聯 實務界와의 相互交流를 促進하며 研究 및 活動 結果를 刊行物 또는 其他 方法으로 發表하고 敎養敎育을 실시한다.
3. 其他 本 研究所 目的에 必要한 重要事業.

第2章 機構 및 任員

第 4條 (機構) 本 研究所의 機構 및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理事會: 理事로 構成하는바 本 研究所 總會機能을 갖는다.
2. 常任理事會 : 常任理事로 構成하는바 理事會에서 委任된 事項과 또는 本 研究所의 重要事業을 審議議決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理事會의 機能을 代行한다.
3. 研究委員會 : 소장, 연구실장, 研究委員으로 構成하는바 本 研究所의 研究事業을 위해 研究業務를 관장 수행한다.
4. 研究室 : 연구실장,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의 지휘하에 연구업무를 관장수행한다.
5. 執行委員會: 소장, 간사장, 간사로 구성하며 일반업무를 관장집행한다.
6. 事務局 : 幹事長 및 各 幹事로 구성하는바 所長의 지휘하에 一般業務를 執行한다.
7. 特別 機構: 本 研究所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議決로 特別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8. 東學民衆聯合 : 本 研究所의 目的에 贊同하는 사람과 本 研究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구

성하는바 東學民衆聯合에 관한 事項은 별도로 規定한다.

第 5條

(任員) 本 研究所에는 35名の 理事, 11名の 常任理事, 그리고 理事長 1名, 所長 1名, 研究室長 1名, 後援會長 1名 또 若干名の 顧問 및 諮問委員을 두는 바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理事 : 本 研究所 創立總會에서 選出하는바 理事中 有故에 의한 缺員中인 理事는 常任理事會에서 先任한다.
2. 理事長 : 理事會에서 選出하며 理事會, 常任理事會, 의 議長이되며 理社長 有故時에는 理事長이 지명한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常任理事 : 理事會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4. 所長 : 常任理事會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하는 바 本 研究所를 代表하고 집행 위원회 연구위원회 의 장이 되며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項을 執行하고 所長 有故時에는 理事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5. 研究室長 : 理事會 同意를 얻어 所長이 任命하는바 研究委員會 연구활동 업무를 통괄 관장한다.
6. 幹事長 : 理事會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임명하는바 소장의 지휘하에 事務局의 業務를 총괄 집행한다.

7. 後援會長 :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하는 바 본 연구소 발전에 후원한다.
8. 顧問 및 諮問委員 : 所長은 國內外人士로서 본 研究所의 目的에 贊同하며 본 研究所 業務에 협조하는 사람을 理事會 議決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추대 및 위촉하는 바 본 연구소 자문에 응한다.

第 6條 (임기) 本研究所 任員의 임기는 3年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第 7條 (各級會議) 理事會는 每年 3回, 常任理事會는 必要하다고 認定될때 理事長이 召集하는바 各會議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出席理事의 過半數로서 議決하되 可不同數 일 때에는 理事長이 이것을 결정한다.

第 8條 (賞罰) 本 研究所 發展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常任理事會 決意로서 理事長이 포상하며 本 研究所의 任職員으로서 本 研究所의 명예를 훼손한 者는 常任理事會의 議決로 理事長이 그 資格을 取消한다.

第3章 財 政

第 9條 (財政) 本 研究所의 財政은 會費, 事業收入金, 기타 收入金으로 充당한다.

第 10條 (會計年度) 本 研究所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第 11條 (監査) 本 研究所의 金錢출납 사항은 理事會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理事會에 보고 하여야 한다.

補 則

第 12條 本 研究所의 定款改定 및 解體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 議決로 이루어진다.

第 13條 本 定款 시행에 있어 必要한 事業 및 研究活動을 위한 운영세칙은 理事會에서 별도로 定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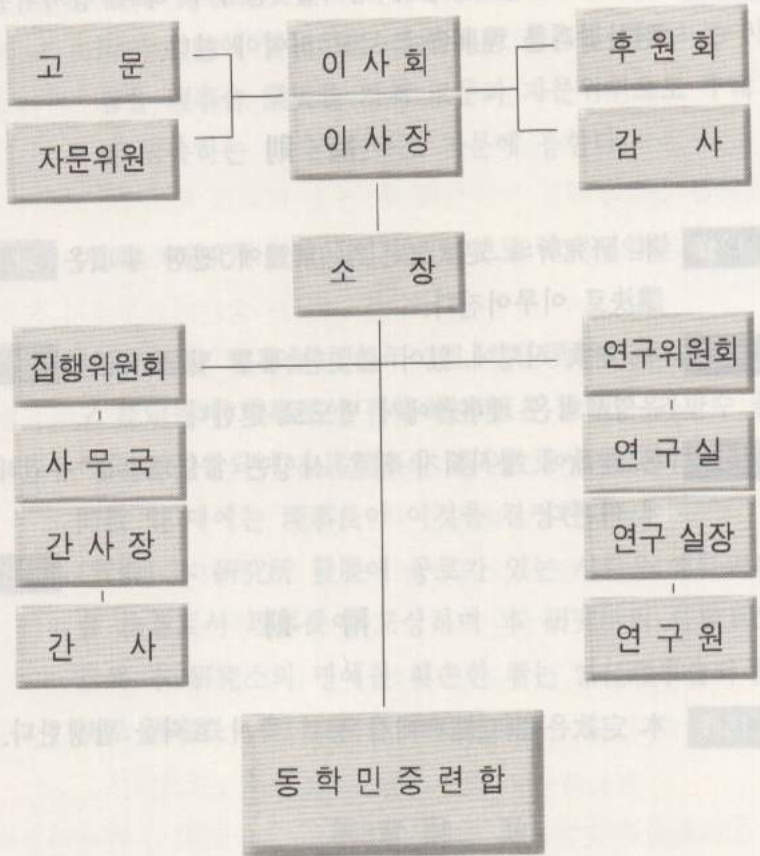
第 14條 本 定款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常任理事會 유권해석에 따른다.

附 則

第 15條 本 定款은 創立總會에서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기 4327년 1월 5일

동학연구소 조직표



宣 言 文

韓民族(한민족)은 檀君(단군)왕검의 弘益人間(홍익인간)이념을 最高(최고)의 價値(가치)로하여 敬天(경천), 敬人(경인), 敬物(경물)을 실천하는 道義文化(도의문화)와 그 傳統(전통)으로 반만년의 歷史(역사)를 면면히 이어왔다.

이러한 이 땅이 近世(근세)에 이르러 주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각축장이 되어 民生(민생)은 도탄에 허덕이고 朝廷(조정)은 무능, 부패하여 나라의 운명이 亡國(망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 東學人(동학인)들은 輔國安民(보국안민)廣齋蒼生(광재창생) 除暴救民(제폭구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墮落(타락)한 조정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30萬(만)이상의 희생을 치르며 민중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하였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의 역사는 짓밟히고 결국 국외세에 의해 해방은 되었지만 그 외세에 의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민족적 비극을 맞게 되었으며 급기야 동족간에 피흘리는 골육상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폐허가된 이 땅의 民衆(민중)은 개미처럼 벌처럼 열심히 일하여 헐벗음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외형적이거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오늘의 국내외 정세는 東西(동서)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東學文告

함께 東西(동서)냉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경제전쟁과 정보화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서구물질문화의 배금주의 및 황금만능주의로 인해 人間性(인간성)과 自然(자연)이 파괴되어 人間(인간)은 非人間化 되어가고 自然(자연)의 생태계는 生物(생물)이 살수 없는 상태로 오염되어 가고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人間(인간)과 자연환경의 終末的(종말적)상황을 극복하여 資本主義(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비롯된 인명경시 풍조와 부도덕성을 치유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人間(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인존주의와 三敬思想(삼경사상)으로 새로운 희망의 민중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東學人(동학인)들은 人尊主義(인존주의)의 新文化(신문화) 창달을 理念(이념)으로하여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다가오는 太平洋時代(태평양시대) 즉, 精神文明(정신문명) 시대를 창조해 가는 주역으로서 위대한 조국을 창업하여 민중이 주인답게 사는 삶의 질이 향상된 黃金(황금)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역군이 될 것을 만천하에 宣言(선언)한다.

단기 4328년 3월 21일

동학민중연합(동민련)



東學革命研究